

제2181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박용만 회장 “식약처 공유주방 승인 환영” 2



황교안 만난 김기문 회장 “추경안 조속 통과를” 13

코스피(15일) 2082.48 (-4.18P) 코스닥 674.79 (-6.38P)  
환율(달러당 원화) 1179.30 (+0.1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434% (+0.00%p)

## 국민 38% “텃세 없애야 카풀 달린다”

### KDI ‘공유경제 혁신 국민조사’

같은 원인 ‘업계 지나친 반대’ 꼽아  
활성화 수준엔 67% “낮다”고 답해  
이용 경험 있을수록 “허용” 의견 많아

#### 공유경제 갈등 이유는 (단위: %)



국민 3명 중 1명은 타다·카풀로 대표되는 공유 경제 갈등의 원인으로 기존 업계를 지목했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유경제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8.0%가 공유경제 갈등의 원인으로 ‘기존 업계의 지나친 반대’를 꼽았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19.3%) △국회 등 정치권의 조정 실패(17.4%) △공유경제 업체의 무리한 사업 추진(13.9%) 등이 뒤를 이었다.

20대의 52.5%는 기존 업계의 반대를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했고 30대(50.7%)와 40대(49.1%)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50대와 60대에선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이 문제라는 응답이 각각 33.5%, 31.4%로 많았다.

현재 한국의 공유경제 활성화 수준에 대해선 응답자의 66.8%가 ‘낮다’ 또는 ‘매우 낮다’고 답했다. 국민은 공유경제 서비스 허용 범위에 대해선 시간이나 횟수 제한을 전제로 허용하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승차공유의 경우 응답자 42.3%는 오전 7~10시와 오후 8~11시 등 시간 제한을 두고, 일일 횟수도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시간은 제한하지 않되 일일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15.1%였다. 허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4.7%였다. 승차공유를 이용한 경험에 있는 응답자는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7.2%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미경험자는 허용금지(17.1%) 비율이 다소 높았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발언한 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 文대통령 “공생 껌日, 더 큰 피해” 직격탄

### “한국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 성장방해 목적이면 성공 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상호 의존과 상호 공생으로 반세기 동안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9·10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그것이라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재·부품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 등 경제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일본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

어나 수입처 다변화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 민사 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결 짓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5면에 계속  
신동민 기자 lawsdm@

## 韓銀 別관공사 ‘줄소송’ 2년內 첫삽도 못 뜬다

삼성물산 본인訴·경실련은 조달청 고발

한국은행의 내 집 마련 꿈이 당분간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삼성물산이 낙찰 예정자 지위 확인 본안 소송을 내 소송전 2라운드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통합별관 공사는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재판장 이승권 수석부장판사)는 한은 통합별관 공사 입찰과 관련해 낙찰 예정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낸 삼성물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1일 계룡건설이 법원으로부터 낙찰 예정자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예정된 결과다.

법원은 계룡건설의 낙찰 예정자 지위를 인정하면서 조달청이 예고한 재입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딱 막힌 통합별관 문제의 활로를 찾아주는 듯했으나 문제가 생겼다. 삼성물산이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7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 낙찰 예정자 지위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과 삼성은 세입자와 건물주 관계인 동시에 새 건물 입주 예정자와 시공 예정자인 묘한 사이다.

한은은 태평로 옛 삼성본관에 세 들어 살고 있다. 삼성물산과 에버랜드 공동 소유였던 삼성본관 건물은 1998년 삼성전자가 매입했으며, 2009년부터는 삼성생명이 소유하고 있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15일에는 시민단체가 불공정입찰을 지적하며 공사 입찰을 맡은 조달청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조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룡건설의 낙찰 예정자 지위가 인정되면서 조달청은 한은 통합별관 공사와 관련해 새로 입찰공고를 낼 수가 없다. 계룡건설이 첫 삽을 뜨더라도 삼성물산의 본안 소송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민사합의 사건은 사안에 따라 2년 이상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예상이다.

김종용 기자 deep@

## 중심을 잡습니다 핵심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국내외 최대 취재망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다양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균형잡힌 언론의 시작은  
언제나 연합뉴스입니다.

# 美공유주방 ‘클라우드키친’ 한국 외식시장 총공세

5월 강남에 1호점... ‘제2 우버’ 목표로 올 6곳 추가 오픈  
온라인 배달음식 시장 세계 4위... 美보다 성장 속도 빨라  
리스크 낮고 임대료 절감 효과... 토종업체 위극과 경쟁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트래비스 칼라닉이 한국 시장에 쫓겼다.

로이터통신은 칼라닉이 세운 공유주방 ‘클라우드키친’이 ‘제 2의 우버’를 목표로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한국 외식산업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최근 소개했다.

클라우드키친은 5월 강남 뒷골목에 20개 이상의 분리된 주방 공간을 갖춘 한국 1호점을 열었다. 클라우드키친은 10개 이상의 아웃렛을 더 열 계획이며, 그중 6곳은 연내 오픈 예정이다.

앞서 클라우드키친은 지난달 한국 토종 공유주방 스타트업인 ‘심플키친’을 인수하는 등 한국 시장에서 적극 공세를 펴고 있다. 심플키친은 올해 말까지 500개 레스토랑을 고객으로 하는 25개 매장을 여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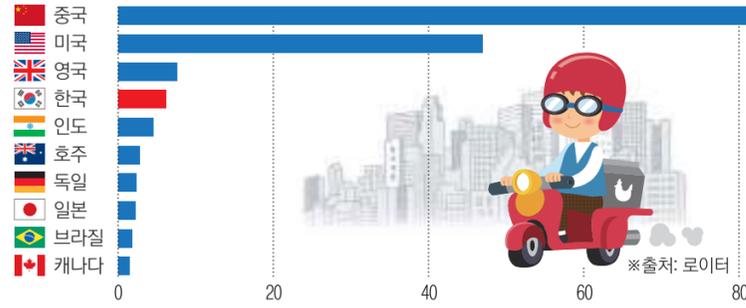
이 목표다.

한국은 클라우드키친이 자체 브랜드로 처음 진출하는 해외 시장이다. 그만큼 한국에서 공유주방 사업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4위 온라인 음식배달시장이다. 식당 수와 음식 지출 면에서 한국 시장은 인구 규모를 크게 웃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인상된 것도 공유주방과 음식배달 전문업체의 급속한 변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는 1인 가구도 급증하고 있다. 독신 가구 비율은 2018년 29%로 10여년 전 대비 약 2배 늘었다.

투자회사 스파크랩스의 지미 김 공동대표는 “칼라닉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한국

세계 10대 음식배달시장 규모 (단위: 10억 달러)



시장에 진출한 것은 그만큼 공유주방 산업에 있어서 한국시장의 매력을 보여준 것”이라며 “한국시장 규모는 크며, 미국보다 성장 속도도 빠르다”고 설명했다.

강남에서 레스토랑을 오랫동안 운영해 왔다는 한 자영업자도 이달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를 접고 클라우드키친에 입점하기로 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그는 16.5㎡ 규모의 주방을 임대해 배달 전문으로 아보카도 버거와 베이글을 판매할 계획이다. 그는 “이전에 공유주방을 써본 적이 없다”며 “그러나 리스크가 낮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다양한 메뉴를 실험할 기회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임대료가 이전보다 약 3분의 2 줄었다”고 덧붙였다.

칼라닉은 불미스러운 일로 우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난 후 지난해 1억5000만 달러(약 1800억 원)에 공유서비스 업체 ‘시티스토리시스스템즈’를 인수했다. 클라우드키친은 시티스토리의 주요 사업부로, 단순한 주방 임대 사업을 넘어서 레스토랑 점주들을 위한 마케팅 서비스도 지원한다. 칼라닉은 지난해 영국 ‘푸

드스타’를 인수하고 현재 중국에서의 투자 기회를 엿보는 등 공유주방을 제2의 우버로 키우려는 야심이다.

그런 그가 한국에 주목한 건 한국은 배달 전문 음식점이 발달해 있어 공유주방 사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은 5180만 인구의 약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성인의 95%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음식점 수는 127개로, 중국(69개)과 일본(57개), 미국(21개)을 능가한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온라인 음식배달 시장규모는 59억 달러로, 5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커졌고, 2023년에는 9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클라우드키친은 한국에서 토종 업체인 위극과 점유율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위극의 앤디 김 CEO는 로이터에 “투자자들은 글로벌 식품 배달 시장의 최전선인 한국에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며 “공유주방 기업은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다른 아시아 시장에도 응용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박용만 “식약처 공무원 업어주고 싶다... 공유주방 승인 환영”

(대한상의 회장)



박용만(왼쪽) 대한상의 회장이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를 찾아 이의경 처장과 악수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골목식당 실험실 역할 기대”

“공유주방(규제)을 풀어주신 식약처 공무원 한 분 한 분 다 업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15일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 양승만 그래잇 대표 등 청년 외식스타트업과 함께 서울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를 찾아 ‘공유주방 규제 완화’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박 회장은 식약처 이의경 처장과 한상배 식품안전정책국장, 김현정 식품안

전정책과장 등 공유주방 샌드박스 담당자를 만난 자리에서 “공유주방이 골목식당, 치킨집으로 일컬어지는 초영세 스타트업에 큰 인기인데 샌드박스를 활용해 속도감 있게 해결해 주셨다”고 평가했다.

1개의 주방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은 초기 창업 비용의 절감 효과가 크고, 근무 시간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무엇보다 조리시설이 갖춰진 주방을 이용하기 때문에 설비 투자 비용이 줄어든다.

이에 식약처는 11일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하나의 주방을 다

수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박 회장은 “하루에 430여 개 음식점이 생기고, 370여 개는 폐업하는 게 현실”이라며 “4명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공유주방이 ‘골목식당 실험실’ 역할을 톡톡히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식약처가 미래사업의 새 길을 여는 엔젤(Angel)이 돼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회장은 “식약처의 공유주방 샌드박스 승인사례가 산업, 금융부문 규제 샌드박스로 더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 규제는 더 강화하고, 국민 편

의를 위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건의했다.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양승만 그래잇 대표는 “최소 5000만 원의 자금을 들여 공간을 얻게 되면 상품도 개발해야 하고 판매량도 보장되지 않는 스타트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이제는 월평균 30만~90만 원 정도만 내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만들 수 있게 됐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샌드박스 허가를 받은 김기웅 위극 대표는 “공유주방을 거쳐 창업한 경우 5년 생존율이 90%이지만 거치지 않은 경우는 10%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식품, 외식업자들을 위한 ‘인큐베이터’가 돼 식품, 외식업계의 유니콘을 탄생시키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

변호선 기자 hsbun@

태양과 바람의 힘을 전기로 바꾸고,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씁니다.  
자동차는 탄소 없이 달리고, 공장 및 빌딩은 에너지의 낭비를 똑똑하게 잡아냅니다.  
한국전력의 에너지신기술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 한국전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한국전력공사 KEPCO

# “일감 몰아주기·환경 규제… ‘소재 국산화’ 곳곳에 지뢰”

## 日 화이트리스트 추가보복 앞두고 세계 비상

18일 일본의 규제가 추가될 경우 TV와 같은 생활가전과 스마트폰 등 완제품 분야까지 피해사정권에 들어갈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에서 귀국한 후 14일 긴급 경영진 간담회를 열고 향후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휴대전화와 가전 등 다른 사업으로의 영향 가능성까지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도 추가규제 폭풍에 따라 피해 확대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계는 대기업의 소재·부품 국산화에 소홀했다는 책임론에 대해서도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5일 전자업계에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가전과 스마트폰 등 완제품 분야 역시 피해 사정권에 들어갈 것이라 우려가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의 경우, 삼성전자는 일부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소니 제품을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5월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2030년 이전에 선두를 차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소니는 현재까지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며 확고부동한 1위에 올라 있다.

일본의 규제 범위가 장비 쪽으로 확산되

면 TV 업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우리나라가 수입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의 74%가 일본산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TV를 추가로 생산할 경우에 또 다른 생산설비가 필요하다. 이때 일본산 장비를 들여오지 못해 생산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권 등 정지권 일각에서 국내 대기업들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재계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삼성에서 에

일부 갤럭시폰에 소니 이미지센서 평판디스플레이 장비 74% 일본산 스마트폰·TV 등 완제품도 사정권

국산화 위해 ‘수직계열화’ 나서면 ‘일감 몰아주기’ 비난 여론 쏟아져 국내 소재산업 ‘환경 규제’ 걸림돌

칭가스 등의 소재를 국산화했다면 삼성 소재를 SK하이닉스에서 쓸 리가 없고 삼성 전자에 거의 공급됐을 텐데,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대표 사례로 적발돼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소재·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수직계열화’에 나서면 ‘일감 몰아주기’라 비판이 쏟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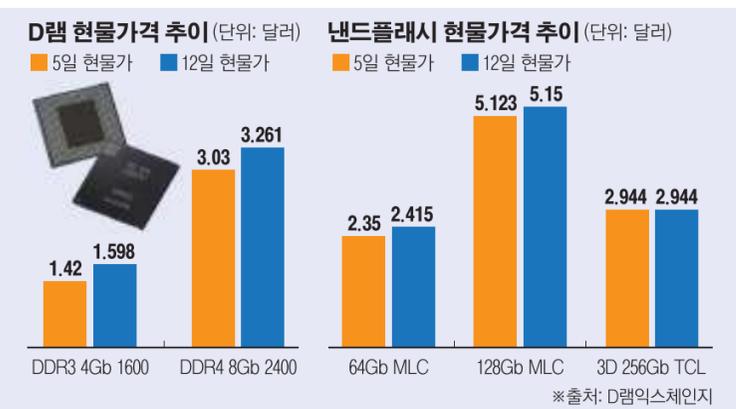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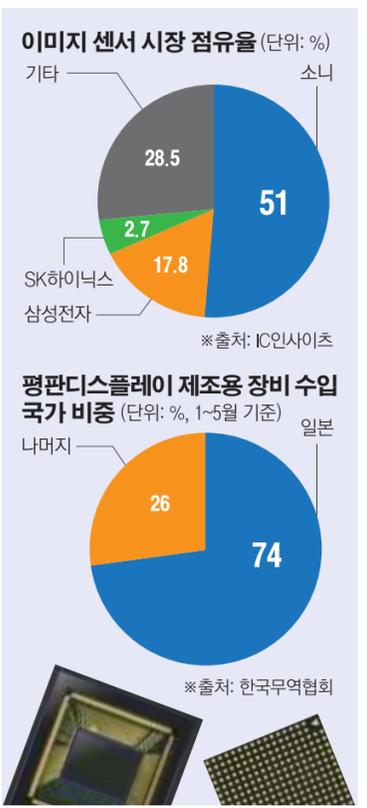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 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준 경우, 그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 법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

과하는 것이다.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3% 이상인 계열사 간에 30% 이상의 내부 거래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의 내부 IT시스템을 다 보여줘야 하는 SI(시스템통합) 업체 등도 일감 몰아주기라 문제 삼는 마당에, 소재를 내부 계열사에서 가져다 쓴다면 더 큰 반발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 국내에선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전자업계의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십 년 이상 소재를 개발해 온 일본 업체들의 기술을 따라잡기 힘든 것은 물론이고 만약 투자를 하더라도 환경 규제로 사업 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이 모든 걸 극복하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면서 상당한 사회적 비난을 받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우리나라 산업계가 소재 국산화로 가는 곳곳에 ‘지뢰’가 묻혀 있다는 지적이다.

송영록 기자 syr@한영대 기자 yeongdai@



## 日 규제 여파 메모리값 쟁쟁 일주일 만에 최고 13% 올라

업황 바닥 통과 가능성... “불확실성 여전 불안감 고조”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대(對)한국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주요 메모리 반도체의 현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전문가들은 추세적인 상승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다른 요인들과 맞물려 반도체 업황의 ‘바닥 통과’ 가능성은 커졌다고 분석한다.

15일 관련 업계와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 등에 따르면 PC에 주로 사용되는 DDR4 8기가비트(Gb) D램 제품의 현물 가격은 지난주 3.26달러로 거래를 마치면서 일주일 전(3.03달러)에 비해 7.6%나 올랐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 사양 제품인 DDR 3 4Gb 현물가는 12일 1.60달러를 기록하면서 주간 상승폭이 무려 12.7%에 달했다. 10일 3.5% 오른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4.7%와 3.9%나 상승했다.

이와 함께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와 USB 드라이브 등에 사용되는 64Gb MLC(멀티플 레벨 셀) 낸드플래시 제품 현물 가격은 2.42달러에 거래돼 일주일 전(2.35달러)보다 2.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D 256Gb TLC(트리플 레벨 셀) 낸드플래시 가격은 2.94달러로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부터 급락세가 이어진 데 따른 반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 최근 일본의 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재고 수준을 고려하면 메모리 가격이 오르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한일 갈등에 따른 불안감에 의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 현물시장 딜러들의 호가 조정으로 ‘노이즈’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과도한 재고 부담을 감안하면 현물가격 상승이 고정거래가격(대단위 계약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한일 갈등을 이용한 현물시장 딜러들의 인위적 호가 조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일본 도시바의 미에(三重)현 윳카이지(四日市) 공장 정전에 따른 생산라인 가동 중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 감축설 등과 함께 한일 갈등에 따른 반도체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메모리 가격의 반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가격 반등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불안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업황 사이클만 보면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지만 워낙 불확실성이 커서 기업들이 전전공공하는 모습”이라면서 “문제는 이런 변수가 산업 차원이 아닌 글로벌 역학관계에 따른 것이어서 기업으로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송영록 기자 syr@

# 대우위니아 그룹

## “창립 20주년 새롭게 출발합니다”

20년간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온 대우그룹이 **대우위니아그룹**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더 높은 삶의 질을 경험해보세요

- ▶ 위니아데제
- ▶ 위니아대우
- ▶ 위니아SLS
- ▶ 대우메탈트러클
- ▶ 스마트저축은행
- ▶ 대우에이텍
- ▶ 대우플러스
- ▶ 대우에이피
- ▶ 대우글로벌
- ▶ 대우홀딩스

<100분→68분>

# 청라~강남 지하철로 한번에... 소요시간 32분 단축

### 정부, 7호선 석남~청라국제도시 10.7km 연장 사업 승인 78분 걸리는 구로역은 42분... 2년 앞당겨 2027년 개통

2027년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강남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16일자로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잇는 연장 10.7km(정거장 6개)에 총사업비는 1조2977억원(국비 7786억원, 지방비 5191억원)이다. 인천 서북부 지역의 대중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앞서 2017년 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은 B/C 1.10, AHP 0.561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바 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은 1996년 강북구간을 시작으로 차례로 개통해 현재는 장안역에서 부평구청역까지 총 57.1km를 운행하고 있으며 부평구청역에서 석남역까지의 연장선(4.2km)은 2020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인천시는 이번 달 공사수행방식(터키공사 또는 기타공사)을 결정하고 9월부터 설계절차에 착수해 2021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한다.



애초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는 개통 시기가 2029년으로 제시됐으나, 조속한 개통에 대한 시민들의 요청을 고려해 대광위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통 시기를 2027년 상반기로 약 2년 정도 앞당겼다.

열차는 1대가 8칸으로 구성된 중량(重

量)전철로 출퇴근 시 6분, 평시는 12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에서 공항철도로, 석남역에서 인천 2호선으로 각각 갈아탈 수 있다.

대광위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이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되면 청라에서 서울 1호선 환승역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현재 78분에서 42분으로 36분 단축되고 강남(고속터미널)까지 환승 없이 한번에 68분에 갈 수 있다. 청라에서 강남까지 당초 100분에서 32분이 단축되는 것이다.

김희수 대광위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개통 시기를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2년가량 단축한 만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국유지 59곳 개발 어떻게...”

### 9월 16일까지 아이디어 공모

국유재산 활용에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2개월간 ‘국유재산 개발·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지는 지난해 국유재산 총조사에서 발굴된 국유지를 포함해 개발 여건이 우수한 국유지 59곳(총 13만㎡)이다.

면적별로는 소규모(1000㎡미만) 30곳, 중규모(1000~1만㎡미만) 26곳, 대규모(1만㎡ 이상) 3곳이다. 대규모 국유지는 전남 고흥군 폐교부지, 대전 유성구 준주거지역부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준주거지역부지 등이다.

입지별로는 세종시를 제외한 각 시도마다 1곳 이상씩 포함됐다. 경기도가 11곳으로 가장 많고, 울산(7곳), 대전·대구(각 6곳)가 뒤를 이었다.

공모전은 일반 국민 부문과 건축·도시·부동산·개발관련 전공자 및 업무종사자 등 전문가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공모 주제는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국유재산 개발·활용 방안이다.

기재부는 응모작에 대해 적합성, 실행 가능성, 효율성, 혁신성을 심사해 대상 2건, 최우수상 4건, 우수상 6건, 장려상 4건 등 총 16건을 선정·시상할 예정이다. 상금은 총 6900만 원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동반자살 모집 글 올리면 오늘부터 2년 이하 징역

지난달 3일부터 2주간 신고된 자살유발 정보가 1만696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살동반자를 모집하는 글은 50% 가까이 급증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16일)에 앞서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인터넷사업자의 협조로 5244건(30.9%)을 삭제했다. 신고 정보를 유형별로 보면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을 희화화하거나 자살에 대한 막연한 감정을 표현한 기타 자살유발정보는 3289건(19.4%)이었다. 이어 자살동반자 모집(2155건 12.7%),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1426건, 8.4%) 등의 순이었다.

이런 자살유발정보는 주로 SNS(1만2862건, 75.8%)를 통해 유통됐다. 기타 사이트는 1736건(10.2%), 온라인 커뮤니티는 1449건(8.5%), 포털 사이트는 917건(5.4%) 등이었다. 특히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가 전년(1462건)보다 47.4% 늘었다. 이 중 88.5%(1907건)는 트위터에서 유통됐다.

16일부터 개정 자살예방법에 따라 온라인에 자살유발정보를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공공건설 상생협력 맞손 이인영(왼쪽 다섯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현미(여섯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식’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운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조정식 정책위 의장, 이 원내대표, 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백종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연합뉴스

## 미세먼지 줄어든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기준 강화

정유·석유화학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오존·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줄이기 위해 시설관리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6일 공포한다.

VOCs는 벤젠, 톨루엔 등으로 그 자체로도 사람에게 해롭지만,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나 오존으로 전환해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VOCs 배출량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원유정제 등 생산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 부분에 중점을 뒀다.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과 전국 약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VOCs 함유기준을 강화한다.

비산 배출은 굴뚝 같은 배출구 없이 대기오염 물질이 곧바로 대기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원유 정제 시설 등에서 비산 배출이 많은 저장 탱크, 냉각탑, 플레어 스택 등의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고정지붕형 저장 탱크에만 적용되던 방지시설 의무 설치를 내부 부상 지붕형 저장 탱크에도 적용했다. 석유제품 생산공정에서 화재나 정전 등으로 인한 압력상승 요인이 생기면 폭발 위험이 있는 폐가스를 안전하게 연소시켜 대기로 배출하는 장치인 플레어 스택 관리기준도 강화했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 친환경차 비중 2.3% 올해 60만대 넘길 듯

친환경자동차가 6월 말 기준으로 53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60만대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기차는 세컨드카로 선호도가 높았다.

15일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344만4165대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약 1.0%(약 24만대) 증가했다. 인구 2.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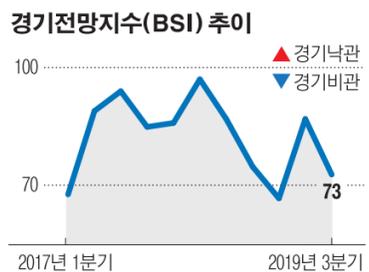
국산차는 2117만대(90.3%), 수입차는 228만대(9.7%)로 수입차 점유율은 지난해 6월 8.9%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의 친환경차(Green Car) 보급 확대와 고연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 따라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자동차는 53만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서 2.3%로 늘었다.

이 중 전기차는 7만2814대를 등록해 1년 만에 약 2배, 수소차는 2353대로 약 6.6배, 하이브리드차는 45만5288대로 약 1.3배 증가했다. 특히 기구당 보유차량 증가 추세에 따라 기존 차량 외에 전기차를 동시에 등록한 승용자동차의 소유자는 2만2177명으로 전년(1만380명) 대비 약 2.1배 늘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반짝 상승 제조업 체감경기 1분기 만에 가라앉아

### 3분기 BSI 73, 전분기比 14P↓ 대한상의 “수출·내수 동반 부진” 10곳 중 6곳 “상반기 목표 미달성”



제조업 체감경기가 지난 2분기 급상승 이후 한 분기 만에 다시 가라앉았다. 지속되는 세계 경기둔화와 내수부진으로 수출·내수기업들의 경기전망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23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분기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BSI)’는 2분기보다 14포인트 하락한 73으로 집계됐다.

BSI는 100 이상이면 ‘이번 분기의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이면 반대다.

대한상의는 “글로벌 교역 둔화세로 수출 감소가 7개월째 이어지는 등 경제·산업 전

반의 성장 모멘텀이 약해진 상황”이라며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 하반기 하방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며 체감경기가 반락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가장 많은 기업이 현재 당면한 애로사항으로 ‘국내외 경기둔화에 따른 매출 부진(54.3%)’을 꼽았다. 이밖에 ‘임금 상승 등 비용부담의 증가(27.9%)’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6.8%)’ 등이 뒤를 이었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체감경기전망은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 3분기 수출기업의 경기전망지수는 88로 전 분기(100)보다 12포인트 하락했으며, 내수부문은 70으로 14포인트 떨어졌다.

‘상반기 실적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제조기업 10곳 중 6곳(60.6%)이 ‘못 미칠 것’으로 응답했다. ‘목표치 달성’은 37.3%였고 ‘초과 달성’은 2.1%에 그쳤다. 목표치 미달 이유로는 ‘내수침체 장기화(84.9%)’ ‘고용환경 변화(28%)’ ‘미중 통상분쟁 심화(18.7%)’ 등이 주된 이유였다.

김문태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경제·산업 전반의 성장역량 약화와 통제가 어려운 대외 불확실성 고조로 인해 사업운동을 보수적으로 펴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 의욕을 높일 수 있는 과감한 조치들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 文대통령·5당 대표 조만간 회동...정경두 해임안이 변수

### '일대일 회담' 고집하던 황교안 "대통령과 조건없이 회담" 제안 한국·바미당 국방장관 해임안 제출... 민주 "받아들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이 조만간 성사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사진) 대표가 15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회담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락한 것으로 보여 환영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모여 남북 판문점 회동, 일본 경제보복 대응 등 현안에서 초당적인 논의를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담 형식'을 둘러싸고 '대통령-5당 대표 회동'을 주장한 청와대와 '일대일 회동'을 고수한 한국당의 입장차가 그간 회동에 걸림돌이 됐다. 황 대표가 이날 어떤 형식의 회동이든 수용하겠다는 쪽으로 선회했고,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도 거부할 이유가 없는 만큼 조만간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여야 간 실무협의 과정에서 형식이나 의제 등을 두고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과 정경두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경질 주장 등을 두고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어 인사문제의 의제 포함 여부가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서 군 경계 실패,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군 기강 해이 등을 문제 삼아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반면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유충현 기자 lamuziq@

## 기업 구조조정 지원 '원샷법' 5년 연장

### 국회 산자위 통과... 적용 범위 신산업 등 확대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시행이 5년 연장되고 적용 범위의 신산업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2일 일몰을 앞둔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17일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19일 본회의가 열리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3년 한시법이다.

위성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

업활력법 개정안은 유효기간을 2024년 8월 12일까지 5년 연장했다. 적용 범위도 현행 과잉공급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 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확대했다.

신산업 진출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다. 신성장동력 기술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의료기기·헬스케어 등 173개 그 사업화 여부는 신산업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신산업 진출 기업에 한해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상법(분할·합병) 및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을 배제했다. 대신 세제와 금리우대 등 다른 인센티브는 제공된다. 김하늬 기자 honey@



국회 예결위서 만난 부부 정태욱(오른쪽)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료 의원들이 아내인 유명희(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정책과 관련해 집중 추궁하자 시선을 외면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공 공사 피해 본 주민 보상받는다

### 공사 손해보험 의무 가입

공공건축물 공사 중 발생한 침하·균열 등으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열린다.

조달청은 다음 달부터 직접설계, 시공관리를 수행하는 도심지 공공 건축공사에 공사손해보험(제3자 배상책임담보)을 의무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설계·시공 단계별 민원 관리를 강화시키고,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먼저 공공 건축공사 설계 단계부터 침하

·균열 등 피해방지 계획(공법) 적용 및 민원 관리 체크리스트를 운용하고, 시공 중에는 민원 관리사항을 집중 점검해 현장 상황에 따라 주변 피해가 예상될 경우 설계변경 등을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제3자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심지 공사에 대한 공사손해보험 가입의 무화를 통해 건설사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지원한다. 현재는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인 관람집회 시설공사, 전시시설공사 등에 한해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세종= 김지영 기자 jye@

### 문 대통령, 일에 직격탄

▶1면서 계속

그러면서 "4대 국제 수출 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할 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해 불신

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 여러분도 자신감을 갖고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당부드린다"고 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을 향한 시작은 언제나 설레는 일입니다  
DB가 당신의 꿈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꿈을 펼치라 Dream Big DB

# 中, 2분기 경제성장률 6.2%... 27년 만에 최저

## 흔들리는 '바오류'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해온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27년 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이는 미국과의 무역전쟁 여파에 따른 것으로, 중국이 6%대 성장률을 일컫는 '바오류'를 지켜내기도 힘겨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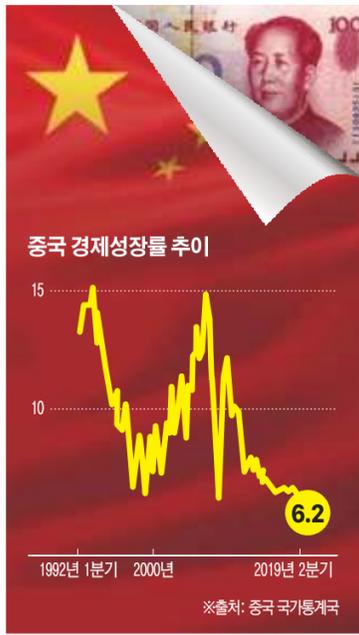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현지시간)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1분기(6.4%) 대비 0.2%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보다 떨어진 수치이자 해당 통계가 시작된 1992년 이후 최저치다.

연간 기준으로 최저치는 텐안먼 사태로 인해 서구권의 경제 제재를 받았던 1990년의 3.9%다. 중국의 지난해 연간 GDP 증가율은 6.6%로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새로운 바닥을 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GDP 증가율은 6.3%다.

## 美무역전쟁·세계경기 둔화 영향 1분기보다 0.2%P 떨어져 금융불안 우려 경기 부양 신중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분기 GDP 증가율은 여전히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 '6.0~6.5%' 범위 안에 있지만, 2분기 중국 경제 활동 대부분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격화하기 전인 4월과 5월 초에 일어났다"며 앞날을 "가능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2분기 초반 해도 3월 중국 정부의 감세와 울림 시작된 대규모 인프라 지출로 낙관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러나 미국



과의 무역 협상이 5월 10일 결렬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000억 달러(약 236조 원) 규모의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면서 중국 경제는 다시 수렁에 빠지게 됐다. 조지 매그너스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확실히 중국의 경제 활동은 4월까지의 확장기 조였다"며 "5월에 돌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NYT는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성장을 강력하게 이끌었던 수출과 수입이 최근 수개월간 부진을 보이면서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해관총서(세관)가 12일 발표한 6월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1.3%, 수입은 7.3% 각각 감소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은 물론 세계 각국의 전반적인 경기둔화에 따른 해외 수요 약화가 중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맥쿼리

캐피탈의 래리 후 중국 경제 담당 대표는 "글로벌 경제의 둔화 속에 중국도 확실히 전반적으로 감속 추세"라고 말했다.

무역은 물론 부채에 허덕이는 중국 금융 시스템이 최근 수주간 잇따른 충격에 흔들린 것도 경기둔화를 부채질했다는 평가다. 중국 금융당국은 5월 말 유동성 위기를 맞은 네이멍구자치구 소재 바오상은행을 압류하고 1년간 경영권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져서도 중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신중한 입장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누적이된 경기부양책으로 국유 기업과 지방 정부의 채무가 커져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지도부는 4월부터 2조 위안(약 343조 원) 규모의 감세·수수로 삭감을 시작, 그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기술株·제조업 부진에... 美 '어닝 리세션' 경고음

## 2분기 어닝시즌 '먹구름'

S&P500 기업 EPS 2.8% 줄 듯 뉴욕증시 하락세 전환 불안 고조

2분기 어닝시즌을 앞두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먹구름에 잔뜩 끼었다. 특히 기술주 부진에 '어닝 리세션(Earnings Recession·실적 침체)'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기술과 원자재 관련 업종들의 실적이 특히 부진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뉴욕증시의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 S&P500 기업들의 2분기 주당순이익(EPS)은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1분기의 0.3% 감소보다 감소폭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팩트셋의 전망이 들어맞는다면 미국 기업들은 2분기 연속 순이익이 감소하는 어닝 리세션에 진입하게 된다고 FT는 전했다. 어닝 리세션은 2016년 중반 이후 처음이다.

기업 순이익의 감소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 최근 제조업 지표 부진에 따른 미국 경기둔화 우려를 더욱 부각시킬 전망이다. 10년간 이어진 미국의 경기 확장세가 끝나면 투자자들이 위험을 줄이고자 주식 대신 채권 등으로 옮기면서 금융시장 혼란을 촉발할 수 있다.

1분기 어닝시즌 부진에도 뉴욕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최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이달 기준금리 인하 신호를 확실하게 보내면서 주가 부양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2일 다우와 S&P500, 나스닥 등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이번 주부터 시작될 어닝시즌은 증시 랠리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기술주는 이번 어닝시즌에 가장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크레디티스 위스는 S&P500기술업종지수에 속한 기업들의 2분기 EPS가 전년보다 평균 7% 이상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미국 기업들은 대체로 자사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Guidance·선제 안내)'를 소극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어 증시 하락 압박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아홉 번째 생일 맞은 판다 외교관 '자오칭' 중국이 2017년 독일에 선물한 판다 '자오칭'이 15일(현지시간)로 아홉 살 생일을 맞아 베를린 동물원에서 아재로 만든 생일 케이크 냄새를 맡고 있다. 중국은 '판다 외교'를 통해 세계 각국과 우호 관계를 쌓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판다가 양국 우호의 새로운 대사가 될 것"이라며 자오칭을 독일에 선물했다. 중국은 1980년부터 세마리를 베를린동물원에 보냈지만 2012년 마지막 남은 한 마리마저 세상을 떠났다. 베를린/로이터연합뉴스

# '대만 트럼프' 귀타이밍, 무너지는 총통의 꿈

## 野 경선서 가오슝 시장에 참패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



식 결정된다. 앞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역시 여론조사 방식으로 차이잉원 현 총통을 차기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대만 총통에 도전하는 귀타이밍(사진) 전 하이정밀공업(폭스콘) 회장의 꿈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중 율화 노선인 대만 야당 국민당은 이날 당 공천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선에서 한귀위 가오슝 시장이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경선은 8~14일 7일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의 지지율로 결정했다. 총 5명이 출마했는데, 한 시장과 귀 전 회장이 마지막까지 맞붙었다. 귀 전 회장이 한 시장을 맹추격했으나 결과적으로 한 시장이 압도적 지지율로 이겼다. 한 시장은 44.8%를 얻어 귀타이밍(27.7%), 에릭추(17.9%) 전 타이베이 시장을 큰 차이로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한 시장은 28일 국민당 전국대표대회에서 국민당 대선 후보로 공

이로써 내년 대만 총통선거에서는 민진당 소속 차이잉원 현 총통과 국민당 소속 한 시장이 맞붙게 됐다.

이번 당 경선에서 후보가 정해지면서 귀 전 회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대만 최고 부호로 애플의 주요 제품을 조립·생산하는 하이이 창립자인 귀 전 회장은 지난 4월 총통 선거에 출마표를 던져 주목 받았다. 이어 6월 주주총회에서 그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주주총회에서 귀 회장은 이사직을 유지하되 기업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총통 선거 출마 선언 직후 귀 전 회장은 사업가 출신이라는 배경과 그간의 발언들로 '대만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얻으며 총통 선거의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한때 여론조사에서 차이잉원 현 총통의 두 배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민당 경선에서는 한 시장과 당내 양강 구도를 형성하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자금력을 앞세워 TV 광고로 공세를 펴는 귀 전 회장에 대해 유권자들의 반감이 커졌다. 반면 청과물시장 경력을 앞세우며 '서민 총통'을 자처한 한 시장은 경제 격차 확대에 불만을 가진 일반 시민으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다.

일각에서는 한 시장에 밀린 귀 전 회장이 국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당은 이날 당의 결속을 위해 경선 후보 전원에게 기자회견 참석을 요청했지만 귀 회장은 불참했다.

만일 귀 전 회장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국민당의 분열로 차이잉원 현 총통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김서영 기자 0jung2@

# 회원국 100개... 몸집 커진 'AIIB'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가국이 100개로 늘었다.

15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AIIB는 13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제4차 연례총회에서 베냉, 지부티, 르완다 등 아프리카 3개국의 가입을 공식으로 비준했다. 이로써 AIIB 참가국은 2016년 출범 당시 57개국에서 100곳으로 늘어났다.

이는 189개국으로 구성된 미국 주도의 세계은행(WB)보다는 작지만 아시아개발은행(ADB, 68개국)에 비해서는 큰 규모다.

회원국 총 수도 크게 늘었지만 또 하나 두드러지는 점은 회원국 구성에 있다. 유럽, 아프리카 등 아시아 이외 지역의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AIIB의 몸집이 커진 만큼 융자 규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금이 1000억 달러(약 117조 9700억 원)인 AIIB는 지난해 말까지 13개 나라의 35개 인프라 프로젝트에 75억 달러의 융자를 제공했다.

## 르완다 등 아프리카 3개국 가입 68개국 참여 ADB보다 규모 커

더욱이 인프라 건설에 대한 자금 융자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 ADB가 2010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에서만 2020년까지 인프라 건설에 8조 달러가 필요하다.

한편, AIIB의 확장세를 두고 WB와 국제통화기금(IMF)을 주도하는 미국의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AIIB에 대해 중국이 자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고 있다. 중국은 AIIB의 30%가량 지분을 보유, 가장 많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AIIB를 국제환경 기준을 따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새 다자기구로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AIIB와 중국의 미묘한 관계는 계속 주목받을 전망이다.

중국이 지부티 같은 국가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서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별'에 위치한 지부티에 지난해 첫 해외 군사기지를 설치했다. 또 14개 주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모두 중국 은행이 자금을 융자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Powered by Innovation

전세계 어디서든

장비의 위치와 상태, 가동 현황을 파악해

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DoosanCONNECT™의 스마트 기술로  
더 큰 미래를 열어갑니다

# 인프라에 스마트를 더하다

## 두산인프라코어



장비위치정보  
강원도 삼척



소모품 교체 알림  
엔진오일필터 (3일)



평균 연비  
21.8 L/hr (지역 평균 24.3 L/h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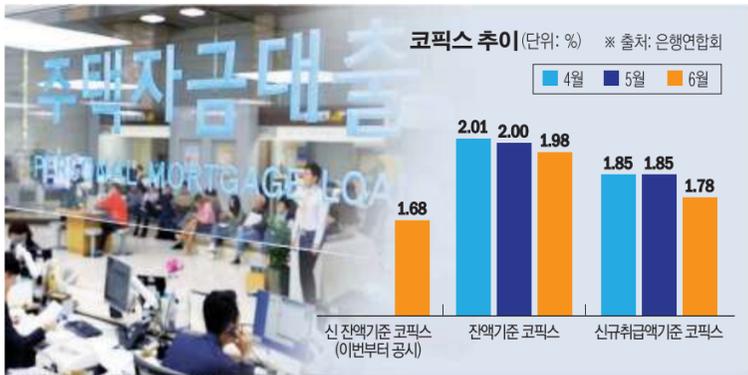


\*DoosanCONNECT™  
고객-장비-본사 직원 간의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두산인프라코어의 기술입니다

〈잔액 기준〉

# 0.3%P 낮아진 新코픽스... 대출 이자 부담 줄어든다

1.68%... 3개월 연속 내림세  
은행聯 “수수료·대출규제 등  
유불리 따져 대출 갈아타야”



새로 도입된 잔액 기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1.68%로 기존 잔액 기준 코픽스보다 0.30%포인트가 하락하면서 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잔액 기준 코픽스도 3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15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날 15시 6월 말 기준 코픽스를 공시했다. 이번부터 새로 공시되기 시작한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는 1.68%로 기존 잔액 코픽스 1.98%보다 0.30%포인트 낮게 나왔다.

기존 잔액 코픽스는 전달보다 0.02%포인트 떨어져 3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78%로 전달보다 0.07%포인트 내렸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기존의 코픽스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가 포함됐다.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기존의 코픽스 대상 상품을 모두 포함하면서 다양한 기타 예수금, 기타차입금 및 결제성자금 등을 추가로 포함했다.

신코픽스 공시 이후에는 새로운 대출 계약시 기존의 잔액기준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의 잔액기준 코픽스도 기존 관련 대출계약을 위해 신코픽스와 병행해 산출해 공시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자는 신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경우 은행의 대한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신코픽스가 0.30%포인트 하락한 만큼 기존 대출자는 재대출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잔액기준 COFIX 연동 대출로 갈아타는 것의 유불리 여부는 고객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

으므로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대출 기간 중 금리 변동 가능성,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신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대체 상환될 경우 일반 대출과 달리 기존 대출 시점의 LTV, DTI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기존대출의 현재 잔액 그대로 대환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대환대출 시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부과되나 대부분 은행은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면 면제해주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다만 대환 시 담보가치가 대출 잔액보다 작거나 차주가 기존 대출 특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환 결정에 앞서 은행에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객진산 기자 jinsan@

나의 휴가지를 알리지 말라~

## ‘農心’ 찾아 떠나는 이대훈 행장

〈NH농협은행〉

홀로 2박3일 ‘팜스테이’ 계획  
다문화가정 지원 방안 등 모색



구상을 했다”고 조심스레 밝혔다. 일부 지역공동체에서 진행 중인 ‘야간 마을학교’ 개념과 비슷하다.

이대훈(사진) NH농협은행장이 이번 여름휴가에 비서, 운전기사 등 수행원들을 떼놓고 홀로 ‘팜스테이’를 떠난다. 휴가지에서도 발로 뛰며 농촌민심을 듣는 농촌 지도자형 면모가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이 행장은 기자와 만나 “이달 말 2박 3일간 팜스테이로 여름휴가를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팜스테이(farm stay)는 농가에서 숙식하면서 농사, 생활, 문화 체험과 마을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농촌체험 여행 프로그램이다. 이 행장은 측근에게 휴가 장소를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행장 직위를 숨긴 채 직접 차를 몰고 인근 농가에서 머물며 밑바닥 농심을 들겠다는 의지다.

이 행장은 이번 휴가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행장은 “농촌 다문화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기 어려운 환경 등으로 2세 격정이 많다고 들었다”며 “다문화가정 부모들에게 한국에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직접 물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행장은 “지역마다 있는 마을회관에 책상, 칠판 등 기자재를 지원하고 전국에 있는 우수한 농협 직원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란

그는 “임기 때만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최소 10년간은 진정성 있게 가야 한다”며 “농협은행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국민의 농협’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녁에는 들고간 책 3권을 탐독하며 임기 후반기 경영 구상에 몰두할 예정이다. 이 행장은 2018년 취임 초부터 ‘디지털 부문에서는 확실히 리딩뱅크가 되겠다’는 목표를 두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부터 매주 월요일 이후 5시간은 NH디지털혁신캠퍼스로 출근해 업무를 본다. 1일 이 행장은 IT 등 디지털 관련 4개 부서 실무자 40명과 3시간가량 끝장토론을 하기도 했다.

이 행장은 최근 디지털전환(DT·Digital Transformation) 전략의 일환으로 ‘올원뱅크’의 사업 고도화 작업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립을 지시했다.

현재 경영전략 컨설팅 업체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다. 11월 말 올원뱅크 분사 등 디지털 관련 구체적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5년새 20% 증가

여름철 휴대품 사고 최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이 최근 5년간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여름철 휴대품 사고가 가장 빈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보험개발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14~2018년 해외여행보험 가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가입 건수와 수입보험료가 각각 연 평균 24.9%와 21.9% 증가했다.

특히 휴대품손해담보 수입보험료 실적이 대폭 증가해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9%에서 지난해 18.1%로 2배 늘었다.

해외여행보험의 사고당 평균 지급보험금은 상해사망(후유장애 포함)사고가 5716만 원, 질병사망(후유장애 포함)은 1627만 원 수준을 보였다.

해외발생 상해의료비 보험금은 46만 원, 해외발생 질병의료비 보험금은 29만

원, 휴대품손해담보 보험금은 평균 19만 원으로 나타났다.

가입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담보별 사고건수도 늘었으며 특히 배상책임과 휴대품손해담보의 사고건수 증가폭이 컸다.

지난해 여행 중 중상해사고로 해외 여행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는 가입자 1만 명당 14.7건, 질병치료는 33.5건으로 지난 4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휴대품손해 사고는 가입자 1만 명당 204.8건, 배상책임 사고는 3.5건으로 2015년 각각 164.9건과 2.4건보다 증가했다.

서지연 기자 sij@

www.douzone.com

# 인공지능 ERP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다!

더존 iCUBE가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기계학습 방법론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  
기업의 업무는 이제 국내 유일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에 맡기십시오.

회사 밖에서 급한 임무가 생기면 어떡하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에도 실시간 업무 진행이 가능한 스마트워크

회계처리 쉬운 방법 없을까?  
거래내역 자동수집, 자동분계,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데이터 오류까지 자동 검증

믿을 만한 거래처인가?  
거래처 신용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우리 회사 경영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까?  
ERP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업에서 필요한 형태로 수정할 수 있는 분석툴 제공

### 기업용 ERP

- 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영업관리
- 무역관리, 구매-재재관리, 생산관리
- 외주관리, 서비스관리, 경영정보관리
- 공사현장관리, 더존 iCUBE, 더존 iCUBE Cloud Edition

###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ERP

- 예산관리, 자산관리, 후원자관리
- 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경영정보관리
- 영업관리, 구매-재재관리, 생산관리
- 외주관리, 더존 iCUBE G20, 더존 iCUBE G20 Cloud Edition

더존 ERP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 위기에 빛난 정의선 ‘글로벌 포석’



정의선(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15일 경기 화성시 현대·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레우벤 리블린(맨 왼쪽)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넥쏘 수소전기차 절개 단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기아차

## 일본 수출 규제 유력한 탄소섬유 이미 연초부터 사우디와 개발협력

지난달 무함마드 왕세자 방한 아랍코와 양해각서 체결

세계 탄소섬유 주요 생산기업

기업명	국가	생산능력(톤/년)
도레이	일본	1만8900
도호 테낙스	일본	1만3900
미쯔비시 레이온	일본	1만850
츨텍	미국	1만750
포모사 플라스틱	대만	8750
핵셀	미국	7000
SGL 그룹	독일	6000
사이텍	미국	2400
도레이첨단소재 (도레이 100% 자회사)	한국	2200
효성	한국	2000
태광산업	한국	1500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에 이어 탄소섬유를 수출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올 초부터 사우디 아랍코와 관련 기술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탄소섬유 개발에 대한 의지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앞서가고 있는 셈이다. 15일 자동차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차 수출규제 품목에 탄소섬유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NHK는 8일 “한국 정부의 개선 움직임이 없다면 규제 강화 대상에 탄소섬유와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현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향후 자동차 산업에서 탄소섬유는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소재다. 탄소섬유의 무게는 철의 25% 수준에 불과한 반면, 강도는 철보다 10배 강하다. 친환경 자동차는 물론 양산차에도 속속 탄소섬유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주요 수출국의 안전기준과 연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가볍고 안전하며 연비를 줄일 수 있는 차체 기술이 절대적이다. 탄소섬유가 이런 숙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 셈이다. 독일 BMW는 최근 일부 고성능차에 탄소섬유를 이용한 강화 플라스틱 차체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자체적으로 탄소섬유 개발기술과 개발능력을 지닌 자동차 메이커는 독일 포르쉐와 BMW 등 일부 유럽 메이커에 불과하다. 일본 완성차 회사가 특정 고성능 모델을 중심으로 무게를 줄이기 위해 탄소섬유 보드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현대기아차 역시 탄소섬유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이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한한 사우디 무함마드 왕세자는 경제협력 단을 함께 꾸려 우리나라에 왔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이를 계기로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랍코’와 수소 에너지 및 탄소섬유 개발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현대차는 사우디 내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사우디 아랍코는 저비용 탄소섬유(CF)와 탄소섬유 강화플라스틱(CFRP)의 광범위한 제조 및 활용기술을 두고 현대차와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CFRP 기술이 도입되면 모노코크 보드의 △차체 프레임 △서스펜션 구조물 △보디 패널 △안전장화 프레임 등을 탄소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 차체는 더욱 견고해지는 동시에 무게는 가벼워져 안전기준 충족과 연비 개선, 배출가스 기준 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개발은 사실상 이미 시작됐다. 정부회장과 아랍코 측의 MOU는 지난달 맺어졌지만 양사의 협업은 이미 올해 초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 연구개발본부 고위 임원은 “아랍코와 MOU 체결은 6월에 이뤄졌지만 연구개발본부 차원에서 이미 올해 초부터 아랍코와 협업 분야를 모색해 왔다”며 “초기에는 고성능 모델의 보디 패널을 시작으로 탄소섬유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오우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5TV에 게재됐습니다

## AI 강국 이스라엘 대통령 만나...“미래車 함께 이끌자”

스타트업 전략 투자 확대 “향후 양산車 적용 추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인공지능(AI) 등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정 부회장은 15일 경기도 화성 남양연구소에서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만나 미래차 기술을 포함한 양측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리블린 대통령은 오찬 이후 경기도 화성 현대기아차 남양기술연구소를 찾았다.

그는 자율주행 4단계 기술을 갖춘 수소전기차 넥소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다. 또 근거리 근력 보조 지원을 위한 ‘H-CEX 의자형 착용 로봇’ 등 웨어러블 로봇과 넥소의 미세먼지

정화 기술 시연, 차량 충돌 시험 등도 참관했다

리블린 대통령은 “이스라엘 스타트업들과 현대차는 주요 미래 과제를 더 큰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현대차가 몇몇 이스라엘 스타트업들과 맺은 파트너십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현대차와의 이스라엘의 협력이 더욱 증대되길 바란다”며 “스마트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 자동차의 미래를 함께 양측이 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은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스라엘 스타트업들과 공동 개발한 기술 일부를 향후 양산차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이스라엘에서 각각 3만8022대(점유율 14.2%), 3만5806대(13.4%)를 판매해 현지 자동

차 시장 1~2위를 석권했다.

현지 시장 석권에 머무르지 않고 이스라엘 스타트업 등에 대한 전략 투자도 강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기술력에서 이스라엘은 독보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스라엘에 설립한 개방형 혁신 센터인 ‘현대 크래들’을 통해 △알레그로 AI△H2프로(에너지) △퍼셉토(드론) 등 현지 기업에 전략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이어 6월에도 이스라엘의 첨단 스타트업인 엠디고에 투자를 결정하고 미래 커넥티드카용 의료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갖춘 친환경 첨단 자동차 신기술에 대한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의 관심이 높았다”며 “현대차그룹은 친환경·자율주행 기술을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첨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 삼성 ‘지싱크 호환’ 게이밍 모니터 43만원

삼성전자는 15일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 ‘CRG5’ 27형(사진)을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제품은 엔비디아의 지싱크(G-Sync)와 호환돼 화면 전환이 빠른 게임에서도 화면이 끊기거나 잘리는 현상을 최소화했다. 또 240Hz 래피드커브 기술을 적용해 초당 240번의 화면을 매끄럽게 출력해 주고, 게임에 대한 몰입감을 높였다.

신제품은 커브드 VA 패널을 사용해 광

시야각을 지원하며, 3000대 1 명암비로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도 선명하게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게임 장르별로 명암, 화면 밝기를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게임 모드’ △슈팅 게임 시 적중률을 높여주는 ‘가상 표적’ 기능 등 게임 특화 기능이 대거 포함됐다. CRG5 27형 신제품 출고가는 43만 원이다.

김석기삼성전자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이번 신제품을 통해



최고의 게이밍 모니터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하이닉스 영업이익 90% 하락 전망

2분기 뚜껑 열면 더 떨어질 수도 최근 D램값 올라도 불확실성 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가 올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슈퍼 호황이 끝나며 업황이 내림세이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제재 사태도 장기화할 분위기다. 최근 메모리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불확실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5일 발표하는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가운데, 앞날도 오리무중이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분석한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6조4292억 원, 영업이익 7441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38%, 영업이익은 무려 86.7% 하락한 수치다.

최근에는 실적이 컨센서스를 밑돌 것

란 전망도 나온다. 박유익 키움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올 2분기 매출은 직전 분기 대비 8% 줄어든 6조3000억 원, 영업이익은 51% 빠진 6723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라며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도 출하량은 애초 기대치에 부합하겠으나 분기 말 원·달러 환율 급락, 낸드 재고평가 손실 추가 반영 등으로 인해 낮은 수익성을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발 불확실성으로 앞날도 불투명하다. 일단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긍정적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소재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주요 메모리 반도체의 현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상대적으로 저사양 제품인 DDR3 4Gb 현물가는 12일 1.60달러를 기록하면서 주간 상승폭이 무려 12.7%에 달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메모리 생산에 차질을 빚는다면, SK하이닉스에도 타격이 올 수 있다.

송영록 기자 syr@

## LG ‘에너지 1등급’ 시스템에어컨

LG전자가 15일 ‘휘센 인공지능 듀얼베인 시스템에어컨’ (사진)을 출시했다.



휘센 인공지능 듀얼베인 시스템에어컨은 냉난방 효율을 높여주는 고집적 열교환기 등 최신 에너지기술을 집약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달성했다.

싱글 타입 시스템에어컨 중 작년 10월 개정된 기준으로 유일하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얻었다.

신제품은 전장형 시스템에어컨 중 최초로 기류를 조절하는 듀얼베인을 갖췄다. 듀얼베인은 기존 전장형 실내기에 설치된 4개의 베인과는 별도로 제품 내부에도 4개의 베인을 추가해 바람의 방향을 더욱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

사용자는 공간과 상황에 맞춰 △바람막이인 ‘에어가이드’를 따로 설치한 것처럼

간접풍을 불어주는 모드 △바닥 방향 5미터까지 따뜻한 바람이 도달하는 모드 등을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제품은 바닥 온도와 실내기 온도를 감지해 공간의 온도를 계산하고 실내 전체 공간을 균일하게 난방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도 적용됐다.

최대 150.9㎡(45.7평) 공간의 공기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어 사계절 공기정정 기로도 손색이 없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 ‘롯데GS화학’ 합작사 설립...2023년까지 8000억 투자

**롯데케미칼·GS에너지 맞손**  
전기·차량용 플라스틱 원료 생산  
연매출 1조·영업익 1000억 기대

**양사 안정적 거래처 확보**  
“화학·정유 시너지 이끌어낼 것”

롯데케미칼이 GS에너지와 8000억 원 규모의 대형 석유화학사업 합작 투자에 나선다.

롯데케미칼과 GS에너지는 15일 서울 잠실 롯데 시그니엘에서 양사 대표이사 간에 비스페놀A(BPA) 및 C4유분 제품을 생산하는 합작사 ‘롯데GS화학’ (가칭)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합작사는 올해 하반기 설립 예정이며, 지분율은 롯데케미칼이 51%, GS에너지가 49%다.

신규 합작사는 2023년까지 총 80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BPA 제품 20만 톤 및 C4유분 제품 21만 톤 생산규모의 공장을

건설한다.

공장은 롯데케미칼 여수 4공장 내 약 10만㎡의 부지에 들어선다.

예상되는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 원과 1000억 원이다. 두 회사의 합작사업으로 7700여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합작사가 생산하는 BPA는 전기·전자 제품, 의료용 기구 및 자동차 헤드램프 케이스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인 폴리카보네이트(PC)의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C4유분은 탄화수소 혼합물로서 추출과정을 통해 합성고무 원료인 부타디엔(BD) 및 인조대리석 원료인 TBA(Tertiary-Butyl Alcohol)를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이번 전략적 제휴를 통해 롯데케미칼과 GS에너지의 사업 경쟁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롯데케미칼은 합작사로부터 BPA를 공급받아 PC 제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기존의 C4유분 제품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또 GS에너지는 자회사인 GS칼텍스를

통해 합작사의 제품 생산원료인 프로필렌, 벤젠, C4유분 등을 합작사에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석유화학 부문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병연 롯데케미칼 대표는 “당사는 석유화학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안정적 공장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롯데케미칼의 역량을 바탕으로 정유·석유화학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의 시너지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용수 GS에너지 대표는 “GS에너지는 정유·석유화학, 자원개발, 전력·집단지 등 기존 핵심사업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업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오고 있다”며 “석유화학사업 역량이 뛰어난 롯데케미칼과의 이번 합작사업을 통해 에너지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사업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15일 서울 잠실 롯데 시그니엘 서울에서 열린 롯데케미칼-GS에너지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식에서 GS에너지 허용수 대표이사(왼쪽)와 롯데케미칼 임병연 대표이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케미칼

## 전경련, 日 네트워크 가동 수출규제 당국에 철회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5일 일본 경제산업성에 수출 규제를 철회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국제 가치사슬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일본 기업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는 만큼 이번 제재를 철회하고 일본의 대외 이미지·신인도를 높이라는 요청이다.

전경련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며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수출규제 품목을 전략물품으로 추가 확대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으로, 수출무역관리령이 개정되면 규제품목은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일본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일본 측에 수출규제 방침 철회 이유로 △국제 가치사슬 교란 △일본 기업·경제 영향 가능성 △일본의 대외 이미지·신인도 영향 △정경 분리 기조 약화 △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 불안을 제시했다.

우선 전경련은 이번 수출 규제에 일본-한국-미국-중국-EU로 연결된 가치사슬이 교란될 것으로 우려했다. ICT 산업은 일본(소재 수출)→한국(부품 생산)→미·중·EU(제품화)의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다.

이번 수출규제가 적용된 리지스트 등 3개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 소재로 한국 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

하면 한국 업체뿐 아니라 글로벌 ICT기업 들에도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는 지적이다. 또한 전경련은 대한(對韓) 수출 기업뿐 아니라 일본 경제·국민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도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돼 전략 물품 수출규제가 적용되면 연 2조8000만 엔 규모의 일본 중간재의 한국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다. 또한 양국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감정 악화로 연 851억 달러에 이르는 양국 전체 교역도 영향받을 것이라 관측이다.

전경련 측은 “규제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들의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최대 85.9%, 예칭가스) 이미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또한 한국산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의 2차 피해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경련은 정경분리 기조 약화와 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의 불안도 이번 조치의 부작용으로 제시했다. 전경련은 “정치적 이유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행할 경우 그동안 암묵적으로 유지해온 ‘정경분리’ 기조가 약화돼 양국 간 경제교류가 위축될 수 있다”며 “또 역사적 안보 동맹국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GROVANA**  
Swiss Made Since 1924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GMT  
1547.1135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 LS산전, 동남아 전력망 공략 본격화

베트남 스마트 전력에너지전 참가

LS산전이 베트남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차세대 전력 솔루션을 앞세워 동남아 전력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LS산전은 베트남 진출 1세대 전력 기업이자 현지 저압전력기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LS산전은 17-20일 4일간 베트남 호찌민시 사이공전시컨벤션센터(SECC)에서 열리는 ‘2019 한국-베트남 스마트 전력에너지전(KOSEF 2019)’에 직류(DC)와 교류(AC)를 망리한 스마트 전력 통합 솔루션 역량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LS산전은 ‘파워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 인 베트남(Power Total Solution

Provider in Vietnam)’을 메인 콘셉트로 국내 민간기업 중 최대인 12부스(108㎡) 규모의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고객 맞춤형 플랫폼 △스마트 전력 솔루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솔루션 등 3개 테마를 중심으로 현지 고객들이 직접 자사의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LS산전은 베트남 화력발전소 구축 사업 수주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인도네시아와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높은 경제성장률과 전력 소비 확대로 전력 인프라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주요국을 본격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송영록 기자 syr@

KB 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에서 바꾸면 출발부터 즐겁다”



# 전세계 어디를 가든 환전은 역시 KB

## Let's KB 환전 페스티벌



### EVENT 1. 월드클래스급 최대 90% 환율우대

Liv(리브)로 환전 시 최대 90% 환율우대  
USD 90% / JPY·EUR 80% / 기프트콘 및 모바일 지급 포함  
KB네트워크환전, KB서울역환전센터, 외화 ATM(USD), 멀티 외화 ATM 이용 시 최대 80% 환율 우대



### EVENT 2. 전국 무료 외화 배달 서비스

KB-POST 외화 배달 서비스 이용 시  
신청금액 상관없이 배달 수수료 면제  
이벤트 기간: 2019. 6. 1(토) ~ 8. 31(토) / 배달 가능 지역: 전국(일부 도서산간지역 제외)



### EVENT 3. 제휴할인 및 적립금 혜택

씨티·두타·SM면세점 및 MK감자유학  
마이리얼트립·포켓와이파이에서 할인 및 적립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 이벤트존 참조

\* 본 이벤트는 KB국민은행의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19-1046-1호 (2019.06.28) 광고물 유효기한 2019.08.31까지

**진화하는 기업의 사회적책임 <2> 혁신 부문 - 환경과 안전을 지키는 기술**

기업들의 '혁신 기술'은 우리 사회의 환경과 안전을 책임지며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까지 주는 대표적인 사회적 책임경영 방안 중 하나다.

혁신 부문에서는 2회에 걸쳐 기업들의 다양한 기술이 사회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소개한다. 1회에서는 '육·해·공(陸·海·空)'에 걸쳐 우리의 소중한 환경은 물론 자연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다양한 혁신 기술을 조명한다. 2회에서는 혁신 기술이 경쟁사,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숨은 사례들도 엿볼 예정이다.

# 석탄발전소 굴뚝서 연기 사라진다

## 空 - 미세먼지 저감

두산중공업, 백연 제거기술 개발 포스코, 환경 개선 1000억 투입 삼성·LG, 공기청정 新가전 내바

삼한사미(三寒四微). '3일간 춥고 4일간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의미의 웃지 못할 신조어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3일간 춥고, 4일간 따뜻한 날씨'를 의미하는 '삼한사온(三寒四溫)'은 이미 옛말이 됐다.

세계 주요 기관은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0%에 달하는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건강 악화'라고 보고 있다.

미세먼지가 치명적인 국민건강 위협 요인으로 부각되자 정부도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후,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컨트론타워 역할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기업들도 함께 거들기에 나섰다. 기업들은 혁신적인 기술을 내놓으며 생산현장 등에서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한국기계연구원과 화력발전소의 '연기·미세먼지'를 한 번에 잡는 혁신 기술 '고효율 습분제거기(EME)'를 개발했다.

EME는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처리시스템 중 하나로 배출가스가 굴뚝으로 나가기 전 마지막 단계에 적용되는 친환경설비로 탈황설비(FGD) 위에 설치, 정전기방식을 새롭게 도입해 굴뚝에서 나오는 백연의 주성분인 습분을 98%까지 제거할 수 있다.

또 기존 환경설비에 EME만 추가로 설치해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0.5mg/Nm3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이는 환경부 허용기준(12mg/Nm3) 대비 4%, 수도권 배출기준(5mg/Nm3) 대비 10%에 불과한 세계 최저 수준이다.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백연(흰 연기)과 미세먼지가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2월 1일 경남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뿜어 내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오른쪽 위 사진은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 본사에 설치된 석탄화력발전소용 파일럿 EME. 정전기를 이용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연기와 미세먼지를 한번에 잡는 설비다.



포스코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조직 가동에 돌입했다. 지난달 그룹의 기술연구소 역할을 하고 있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연구센터'를 설립했다. RIST 미세먼지연구센터는 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미세먼지 저감 혁신 기술'을 개발한다. 화학, 화공, 환경, 연소 관련 박사급 인력 10여 명으로 구성된 센터는 특히 다양한 산업공정에 적용이 가능한 초미세먼지 포집용 고효율 집진기술,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정시스템을 개발한다. 또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낮은 비용으로 저감할 수 있는 기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집진기 운전 자동제어 기술 등에 대한 개발도 추진한다. 포스코는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100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실외뿐 아니라 실내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가전제품에도 미세먼지 퇴치를 위한 혁신 기술이 더해졌다. 가전업체들은 다양한 미세먼지 솔루션 제품들을 내놨다.

공기청정기 '무공퓨브'는 하이브리드 집진필터를 장착해 초미세먼지 기준인 2.5μm(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0.3μm크기의 먼지도 99.999%까지 제거할 수 있다. 이는 10만 개의 먼지가 필터를 통과한다고 가정할 때 단 1개의 먼지만 빠져나갈 정도로 높은 청정 수준이다. 또 삼성전자 무선 청소기 '삼성 제트'는 삼성만의 특허기술인 '제트 사이클론'을 적용해 27개에 달하는 에어홀이 최대 200W의 강력한 흡입력을 만들어 생활 미세먼지까지 빨아들인다.

LG전자의 의류관리기 스타일러는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에서는 매년 계절성 꽃가루로 인해 수도권 인구 중 절반가량이 2100만 명이 알레르기를 겪고 있는데 스타일러가 꽃가루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이 일본 고객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간 것이다. 또 LG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빙 행어(Moving Hanger)' 기술은 강력한 힘으로 1분에 최대 200회 옷을 흔들며 털어낸 옷 전체의 미세먼지를 끌고 루 제거해 준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현대제철의 내진용 H형강 SHN. 사진제공 현대제철



현대제철의 내진용 H형강 SHN. 사진제공 현대제철

## 123층 마천루도 지진에 끄떡없게

## 陸 - 내진 강재 개발

2016년 9월 경주에서 지진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했다. 2017년 11월에는 포항에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해 대학수확능력시험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한국은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진은 예측이 어렵다. 피해 범위가 넓어 복구 시간도 오래 걸린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내진(지진에 견디는 것) 설계를 바탕으로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조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내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대제철은 '내진용 강재' 선도 업체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구조 재료로 많이 쓰이는 콘크리트에 비해 형강·후판·철근·강관 등으로 분류되는 강재(Steel)는 지진과 같은 외력에 대해 저항하는 성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건축물의 붕괴 유형을 조사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조용 강재로는 충분한 내진 성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오며 내진용 강재(건축 구조용 강재)의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했다.

현대제철은 2005년 국내 최초로 내진 성능이 확보된 SHN(건축구조용열간압연형강)을 개발했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SHN은 국내 주요 건축물인 잠실롯데월드타워, IFC in seoul, 일산 킨텍스 등 국내뿐 아니라 해외 화력발전소, 제2남극기지 등 극한의 환경에서 건설된 구조물에게까지 널리 적용되고 있다. 2006년 400톤에 불과했던 SHN 판매량은 2014년 28만 톤, 2016년 59만 톤, 2017년 65만 톤을 기록하며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대제철은 2011년부터 내진용 철근 개발에 착수하고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3년 국내 최초로 내진용 철근을 개발한 데 이어 최근 성능을 한층 강화한 강종 개발에 성공했다.

현대제철의 내진용 강재 개발 의지는 2017년 11월 내진 강재 브랜드 'H CORE' 출시로 이어졌다. 회사 측은 'H CORE'에 대해 "지진의 충격을 흡수해 지각의 흔들림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성능을 지닌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강재 대비 높은 에너지 흡수력·충격인성·용접성 등의 특성이 있어 이를 건축물에 적용할 경우 외부 충격으로부터 거주자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황산화물·페플라스틱 줄여 생명이 숨쉬는 바다만들기

## 海 - 선박 오염 개선

현대상선, 매연 탈황 설비 구축 우시산, 선박 쓰레기 업사이클링

바다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바닷속 쓰레기 문제가 큰 화두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사람들이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들이 바다를 골방들게 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섰다. 현대상선은 탈황설비인 '스크러버'를 설치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SK이노베이션이 후원하는 사회적기업 '우시산'은 바다에서 나온 페플라스틱을 이용한 상품 만들기를 통해 환경 지키기에 동참하고 있다.

해운업계에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대기 오염물질이 골치였다.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이 늘어나면서 바닷물이 오염되

고 곧 바다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황산화물은 3대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로 선박에서만 전체 양의 13%를 배출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운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치를 규제하는 'IMO 2020'을 발효한 것이다. IMO 2020은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상한선을 기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는 규제다. 황산화물 배출을 막아 바다 환경 오염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변화는 해운업에 큰 패러다임을 몰고 왔다. 2020년부터는 선박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고유황유를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3가지를 꼽았다. 첫째, 연료를 바꾸는 것이다. 고유황유에서 황 함유량이 적은 저유황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두 번째는 선체에 '스크러

버'라고 불리는 탈황설비를 설치해 배출되는 황산화물의 함유량을 낮추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석유가 아닌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LNG 선박이 대표적이다.

국적 해운사인 '현대상선'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스크러버' 설치를 택했다. 현대상선처럼 보유 선대가 적으면 스크러버를 설치해도 초기 비용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스크러버 설치의 장점은 기존에 사용하던 고유황유를 계속해서 사용해 원가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2020년 전후 저유황유와 고유황유의 가격 차이가 벌어진다면 타 해운사와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스크러버 설치를 통해 황산화물과 미세먼지 배출을 90%가량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해 일거양득이다.

해양 생태계를 지키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해양 플라스틱 문제가 불거질 무렵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

들을 고래가 먹으면서 폐죽음을 당한 일이 있었다. 이 안타까운 사건에 귀를 기울인 사회적기업 '우시산'은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며 환경 분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나섰다.

우시산은 SK이노베이션이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이다. 2015년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에너지와 울산 남구청이 함께 마련한 창업 공모전에서 탄생한 기업이다. 울산의 상징인 고래를 보호하지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우시산은 울산항에 입항하는 대형 선박들이 안고 온 페플라스틱 폐기물을 업사이클링(버려지는 천이나 목재 등을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해 인형, 에코백, 티셔츠 등 친환경 제품을 제작한다. 죽은 고래 뱃속에서 많은 페플라스틱이 나온 것을 보고 페플라스틱을 활용해 고래 인형을 만드는 역발상을 한 것이다. 김기승 기자 kissong@

# 중소 부담 줄이는 고가 연구장비 공동활용... 중기부가 꿀씨

(32.3%)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사업을 해온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부 예산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허용 비중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중기부 예산이 쓰인 연구시설·장비 중 공동활용 허용 비율은 32.3%로 이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조사한 12개 부처 중 꼴찌다.

‘공동활용’은 국가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중 하나다. 동시에 외산 장비 구입 비중을 줄이고, 연구개발(R&D)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는 방안이기도 하다. 15일 장비활용종합포털(ZEUS)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구축된 R&D 시설과 장비 수는 2005년 6월 이후 현재까지 5만8645개로 집계된다. 이 중 국산 비중은 1만8343개, 외산 비중은 4만302개로 외산 장비 비중이 압도적이다. 구축액 역시 10조3228억 원 중 국산 비중이 4조2900만 원, 외산 비중이 6조320만 원이다. 중기부는 2007년부터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사업을 해왔다. 중기부가 지난해

2013~2017년 부처별 조사 결과 공동활용 적은 민간투자 많은 탓 연구시설·장비 주요 투자 주체 산자부 59.1%·과기부 58.4%

까지 ‘연구기반활용사업(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에 쓴 예산은 1611억3900만 원이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8.9% 늘어난 136억4400만 원이 책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도 15일 기존 연구장비를 특화된 연구분야별로 한곳에 모아 전문적으로 공동활용하는 핵심연구지원시설의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연연 등의 공공기관에 구축된 고가 연구장비들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런 가운데 이달 10일 KISTEP이 발표한 ‘2017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투자 현황 및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 중 중기부의 공동활용 비중은 32.3%에 그

2013~2017년 부처별 공동활용 허용(구축 수) (단위: 점)

부처	활용 범위			공동활용 허용률(단위: %) (A/C)
	공동활용(A)	단독활용(B)	합계(C)	
고용노동부	22	3	25	88
교육부	701	223	924	75.9
농림축산식품부	82	31	113	72.6
보건복지부	259	159	418	62
산업통상자원부	3630	2508	6138	59.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848	4167	10015	58.4
해양수산부	358	435	793	45.1
환경부	98	157	255	38.4
행정안전부	18	31	49	36.7
문화체육관광부	10	19	29	34.5
중소벤처기업부	316	663	979	32.3

쳤다. 2017년 8월 청에서 부로 승격되기 전에는 중기청이 투자한 연구시설·장비 중 공동활용 비중을 집계한 것이다. 2013~2017년, 5년 동안 부처별 공동활용 허용률 기준으로 12개 장관급 부처 중 꼴찌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관계자는 “중기부의 경우 5년간 민간에 투자한 연구시설·장비가 90% 이상이며 공동활용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며

“민간의 경우 연구시설·장비를 공동활용하는 경우가 낮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5년간 민간기업의 공동활용 허용률은 27.8%였고, 공기업의 공동활용 허용률은 14.8%로 저조했다. 반면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 국·공립 연구기관의 공동활용 허용률은 각각 88.8%, 68.1%, 68.86%를 기록했다. 연구 시설·장비의 주요 투자 주체인과

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각각 58.4%, 59.1%를 기록했다. 그 외에 고용노동부는 88.0%, 교육부는 75.95%, 국토교통부는 42.9%, 농림축산식품부는 72.6%, 문화체육관광부는 34.5%, 보건복지부는 62.0%, 해양수산부는 45.1%, 행정안전부는 36.7%, 환경부는 38.4%를 각각 기록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가 초점을 맞추는 연구장비 활용 사업은 이미 구축된 연구소·대학의 연구장비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나 산자부는 처음 연구장비를 투자할 때부터 목적 자체를 공동 사용에 둔 것이 많지만 중기부는 별도로 연구시설 구축 투자 예산이 없어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장비 투자 시점부터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안 되고 있지만, 공동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 LG U+, 블록체인 기술로 휴대폰 보험금 청구 간소화

LG유플러스는 17일부터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휴대폰 보험금 간편 청구 앱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휴대폰 보험금 간편 청구 앱을 통해 고객은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사고 당일 보상이 가능해진다. 또 앱에서 보상받을 휴대폰을 선택하고 가까운 매장을 조회해 방문할 수 있어 사고 당일 휴대폰 수령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고객이 휴대폰 분실·파손 시 제조사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 내역과 영수증 등 보상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팩스로 보내거나 사진으로 찍은 후 앱 또는 홈페이지에 첨부해야 하는 등 번거

로웠다. 전용앱 통해 사고내역 간단 입력 서류제출 없이 당일 보상 서류 위·변조 원천 차단... 고객 관점 UI 적용 편의성 높여

로웠다. LG유플러스는 업계 최초로 상호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동기화하는 기술인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 휴대폰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LG전자, KB손해보험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LG CNS의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Monachain)’을 기반으로 개발·구축됐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보험사에 보

상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서비스 센터 수리내역, 영수증 등의 정보가 보험사에 공유된다. 이를 통해 보험 청구를 위한 여러 수작업 단계와 서류 심사 시간이 줄어들어 보험금 수령이 빨라진다.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한 수리 영수증 조작 등의 서류 위변조 행위도 원천 차단된다. 복잡했던 보상 접수는 고객 관점의 사용자 UI를 적용,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접수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해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서

술형으로 작성하던 13가지 사고 접수 문항은 선택형으로 8가지로 간략히 작성하면 된다. 접수 후 진행 상황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또 LG유플러스에 등록된 카드번호 또는 은행계좌로 앱 로그인인 가능하다. 따라서 휴대폰을 분실한 상태에서도 다른 휴대폰을 통해 휴대폰 보험금 간편 청구를 할 수 있다. 통신료를 은행이체로 납부하는 고객은 등록된 은행계좌로 보험금이 자동 지급된다. 제조사 서비스 센터 또한 서류 발급, 응대 시간 간소화 등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 수리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법근 기자 nova@

와디즈, 상반기 펀딩액 656억 149%↑... 지난해 연간 규모 초과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가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펀딩 금액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히 증가하는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와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와디즈는 올 상반기에만 656억 원을 모집해 전년 동기 대비 14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펀딩액인 601억 원을 웃도는 금액으로 올해 1800억 원까지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누적 펀딩액은 1700억 원을 상회한다.

와디즈는 6월 한 달에만 161억 원을 모집하며, 1월 100억 원 달성 이후 월 최고 거래액을 경신해 월 200억 원을 앞두고 있다. 또한 일 평균 펀딩금액도 크게 증가해 전년 동기 대비 147% 성장한 3억6000만 원에 이른다. 와디즈가 제공하는 리워드형과 투자형을 구분해 살펴보면, 리워드는 4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7%, 투자는 230억 원으로 91% 증가했다. 투자형 펀딩의 경우 모집금액 기준 83%, 프로젝트 성공건수 기준 72%, 투자건수 기준 94%를 점유했다. 김우람 기자 hura@

## 중소 찾은 황교안 “日규제 대응책 마련 노력”

(자유한국당 대표)

중기중앙회 현안과제 56건 전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문제 관련해 “안도의 한숨을 쉰다”고 밝혔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엇그제 결정 났는데 중소기업은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쉰다”며 “최저임금이 지난해처럼 오르면 어쩌나 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지급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해 만족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계는 한국당에서 지지한 ‘동결’을 희망했는데, 동결되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 중기중앙회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회담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그는 “회담이 이루어지면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현안 과제 56건을 전달했다. 긴급 현안인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프로그램 준비, 추경안 편성 및 통과, 대기업과 부품소재 개발 중소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논의

됐다. 김 회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내년에는 중소기업들도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등 국회와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소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중소기업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 SKB, 2.5Gbps 속도 케이블모뎀 개발 성공

HFC 10기가급 서비스 박차

SK브로드밴드는 세계 최초로 2.5기가(Gbps) 인터페이스가 제공되는 케이블모뎀 개발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케이블모뎀은 HFC(Hybrid Fiber Coaxial cable, 광동축혼합망)에 인터넷과 IPTV를 제공하는 단말장치를 일컫는다. HFC 기술은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로 구성된 망을 이용해 초고속인터넷 및 IPTV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전에는 최대 500Mbps까지 서비스가 가능했으나, 이번 케이블모뎀 개발로 HFC 가입자에게 최대 2.5기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SK브로드밴드는 2017년 국내 최초로 닥시스(DOCSIS: HFC망 통신을 위한 표준) 3.1 기술을 적용해 1기가 속도 제공 케이블모뎀을 개발한 바 있다. 이번에도 같은 닥시스(DOCSIS) 3.1 기술을 적용해 세계 최초로 2.5기가 속도 케이블모뎀 개발에 성공했다.

이 케이블모뎀은 기존에 1기가 4개 포트에 추가로 2.5기가 포트까지 총 5개의 포트를 제공한다. 다양한 단말기를 수용할 수 있어 집 안에서 스마트폰, 노트북 등 여러 단말기를 사용하는 통신 환경에 최적화돼 있다. 특히 HFC는 과거 방송망 기반에서 IP망으로 발전해온 매체로 상향 대역폭이 부족했으나 이번에 개발한 케이블모뎀은 상향 대역폭을 기존 100Mbps에서 500Mbps로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가입자에게 충분한 대역폭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유무선 통신환경을 제공해 두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1기가 서비스를 사용해도 끊김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박찬용 SK브로드밴드 인프라 부문장은 “2.5기가 케이블모뎀 개발을 통해 가입자의 다양한 단말기를 수용하고 폭증하는 트래픽을 끊김없이 서비스해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고의 통신, 미디어 회사로 거듭나고, 10기가급 인터넷 서비스 제공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법근 기자 nova@



# ‘팔도네넴편·트리플짜파게티’ 공통점 “고객 의견 담았습니다”



소비자가 유통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단순히 품질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넘어 기업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거나 제품 개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기업들 역시 소비자와 쌍방향 소통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고 한정판으로 선보인 제품의 상시 판매를 결정하는 등 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식품업계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제품이나 패키지를 변경하는 데 가장 적극적이다.

팔도는 매운맛으로 화제가 됐던 ‘팔도네넴편’을 정식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아민정음을 적용해 네이밍한 팔도네넴편은 기존 팔도비빔면보다 5배 매운맛이 특징으로 1000만 개 한정판으로 판매했거나 SNS상에서 정식 출시 요구가 이어져 왔던 제품이다. 팔도는 기존 팔도네넴편의 제품명을 ‘팔도 비빔면 매운맛(이하 비빔면 매운맛)’으로 변경하고 정식 출시를 결정했다. 앞서 팔도는 팔도비빔면의 소스만 따로 출시해 달라는 소비자가 늘어나자 팔도 비빔장을 제품화하기도 했다.

삼양식품도 불닭볶음면의 인기로 힘입어 소스 시장에 출시표를 던졌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에 대한 소비자 호응이 이어지자 불닭소스를 한정판으로 선보였다가 밋발치는 소비자들의 출시 요구에 정식 출시에 나선 바 있다.

## 팔도, SNS 고객 출시 요청

## ‘비빔면 매운맛’ 정식 출시

## 농심 ‘트리플 짜파게티...’ 등 식품업계 소비자 니즈 반영

농심이 짜파게티 35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트리플 짜파게티 큰사발’도 제작 단계부터 소비자의 입김이 작용했다.

트리플 짜파게티 큰사발은 5월 트리플과 와사마요, 치즈 등 세 가지 짜파게티 응용 레시피를 후보로 스페셜 짜파게티의 콘셉트를 선정하는 소비자 투표를 진행한 결과 가장 많은 득표를 얻어 탄생했다. 5만 5000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트리플 짜파게티는 70%의 지지를 이끌어낸 끝에 제품화됐다.

이마트 역시 과거에 출시해 특특히 재미를 봤던 ‘치즈 몽땅’을 리뉴얼해 선보였다. 리뉴얼한 뉴치즈몽땅은 ‘기존 치즈몽땅이 너무 커서 먹기 힘들다’는 소비자의 견이 쇠도하자 기존 빵 크기를 4분의 1로 줄여 내놨다.

남양유업은 알루미늄 소재의 분유 안전캡이 습기에 약하고 내용물 확인이 어렵다는 소비자의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달부터

업계 최초로 투명 안전캡을 도입했다. 기존 분유 안전캡은 불투명해 외부에서 들어간 이물질 등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소비자 의견에 따른 것이다.

오비맥주는 발표주 ‘필구’의 캐릭터 네이밍을 소비자 공모를 통해 ‘필구’로 정한 데 이어 대표 맥주 브랜드인 카스가 유튜브 브와 함께 인터랙티브 영화 ‘아오르비’ 제작에도 나섰다.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뻘한 결말 대신 소비자가 결말을 선택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아오르비(AORB)는 A 또는 B를 선택하라는 뜻의 ‘A or B’를 밀레니얼 세대의 어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시청자는 총 다섯 번의 선택을 통해 각기 다른 결말을 조우할 수 있다. 카스는 ‘당신의 선택을 응원한다’는 캠페인의 취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번 영화를 제작했다.

유통업계에서는 개인의 취향을 중시하는 소비 풍조가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해 탄생하는 제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프로슈머와 모디슈머의 확산으로 창조적인 소비자가 늘면서 기업들도 소비자를 개발 단계부터 참여시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제품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기업들로서는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 ‘샴페인 그루에’ 초특가 판매

이마트가 15일 울산점에서 프랑스 샴페인 지방의 스파클링 와인인 ‘샴페인 그루에(Champagne Gruet)’를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1년 전부터 샴페인 전역의 와이너리를 접촉, 3만 병 이상 대량 기획과 수입 및 유통사 최소 마진을 통해 2만9800원 특가에 ‘샴페인 그루에’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신태현 기자 holjiak@

## 싱가포르 맛집 ‘점보씨푸드’ 국내 론칭

### 디딤 자회사와 조인트벤처

“한국 진출을 위해 직접 찾아가 싱가포르 외식 브랜드 중 가장 흥대받았던 곳이 점보씨푸드다. 다른 식당에 가면 음식도 대접하고 공장 투어도 시켜주는데, 점보는 아는 척도 안 하더라. 알고 보니 점보를 찾아간 한국 회사들이 20군데가 넘었다고 한다.”(임재준 JD F&B 대표)

‘연안식당’ 등으로 유명한 외식 브랜드 디딤과 싱가포르 점보그룹은 15일 서울도곡동에 위치한 점보씨푸드 1호점에서 국내 론칭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2월 디딤의 자회사인 TCI와 점보그룹은 자본 비율 50:50인 조인트벤처 JD F&B를 설립해 공동사업을 펼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임재준 JD F&B 대표는 점보씨푸드 국내 론칭 뒷얘기를 이같이 전하며 “점보 측이 애초에 디딤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조인트벤처는 못 하고



프랜차이즈만 주겠다고 하더라”고 입을 열었다. 점보씨푸드는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주요 9개 도시에 17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말을 쓰지 않는 나라는 조인트벤처를 하기 어렵다는 게 점보씨푸드 본사 측 입장이었으나, 비

중화권에선 최초로 한국과 조인트벤처 사업을 하게 됐다.

점보씨푸드는 접근 가능한 럭셔리(Affordable Luxury)를 추구한다. 이범택 디딤 대표는 “싱가포르 크랩 원가를 따지면 놀랄 정도로 원가율이 높은 편이다. 국내에 매장을 많이 열면 열수록 가격을 낮출 수 있다. 벌크로 크랩을 어느 정도 사느냐에 따라 바이링 파워를 발휘할 수 있으며, 식재료 구매의 가격 차이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점보씨푸드 2호점으로 일산 정발산동 디딤타운 4층에 루프탑 수영장장과 함께 10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이범택 대표는 “점보 크랩”이라고 불릴 정도로 크랩이라는 강력한 시그니처를 통해 한국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키암 맹점보그룹 CEO는 “1987년부터 시작된 점보씨푸드는 싱가포르에서 가장 신선한 해산물을 판매하는 대표 식당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동북아 관광객들에게 사랑받았던 만큼 서울에 매장을 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연도	월	내용
2006년	3월	메디톡스, '메디톡스' 국내 출시
2014년	4월	대웅제약, '나보타' 국내 출시
2016년	11월	메디톡스, 대웅제약의 균주 불법 취득 주장
	12월	경찰 수사의뢰
2017년	6월	메디톡스, 美 법원에 대웅제약 민사소송 제기
	10월	메디톡스, 균주 관련 국내 민사소송 제기
2018년	4월	美법원, 한국 내 소송 판단 존중 결정
2019년	2월	美FDA, 나보타 판매 승인
	3월	美ITC, 대웅제약·에볼루스 조사 착수
	5월	美ITC, 대웅제약에 나보타 균주 제출 명령
	7월	美ITC, 메디톡스에 영업비밀 침해 설명 요구

## 美 국제무역위원회, 메디톡스에 “대웅제약 침해 근거 밝혀라”

### 보툴리눔 독신 논란 새 국면

보툴리눔 독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싸움이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번에는 메디톡스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면서 어느 쪽이 승기를 잡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는 메디톡스에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16일(현지시간)까지 밝혀라고 명령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독신 개발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우리는 영업비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으며, ITC는 명령문(Order No.17)을 통해 메디톡스에 이를 직접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요청한 사항을 ITC 재판부가 받아들임으로써 ITC 소송에 유리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올해 2월 미국 앨리건과 함께 메디톡스 전(前)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독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불법 행위에 대해 ITC에 제소했다. ITC는 5월 8일 대웅제약 측에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주까지 ITC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메디톡스는 전문가와 함께 증거 및 증언 조사 내용을 토대로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 제출할 계획이다.

진실공방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상황은 상대방의 치부를 들추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소송을 거쳐 최종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명되는 한쪽 업체는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함에 따라 사활을 건 공방전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독신 제제 ‘메디톡스’를 허가받기 전에 유통하고 생산 공정에서 멸균 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메디톡스는 2006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했기에 10년도 훌쩍 넘은 이야기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유사한 내용이 접수되는 등 5월경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관련 조사에 나섰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ITC의 판단까지는 보통 1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는 최종 판결 시점을 2020년 5월경으로 예상한다.

양 사는 각자 승리를 확신한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현재 국내 민사소송에서 진행 중인 균주의 포자 감정과 함께 미국 ITC 소송을 통해 명백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메디톡스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돼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가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5에 게재했습니다

## 제철 맞은 ‘국산 오징어’ 들여가세요

### 롯데마트, 마리당 2500원 행사

롯데마트가 어획량을 회복하고 있는 ‘국산 생(生)오징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국내 수산 시장에서 자취를 감춰 ‘금(金)징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던 ‘오징어’가 조금씩 어획량을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마트는 제철 맞은 오징어를 맛보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해 17일까지 국산 생(生)오징어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산 생오징어(1마리/냉장)’를 2500원에 판매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물량 수급 상황을 보고 오징어 행사를 지속 진행할 계획이다.

속초 수협에 따르면 본격 조업이 시작된 5월부터 7월 현재까지 오징어 어획량은 약 249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5톤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국내 최대 어시장 중 하나인 ‘부산공동어시장’의 5, 6월 위판실적 역시 올해 5월

오징어 위판량은 4450kg으로 전년 동기간 2230kg 대비 2배가량(99.5%) 늘어났으며, 6월에는 4만3416kg으로 전년 2만 7770kg 대비 56.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획량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 과거 어획량에는 못 미친다. 한국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7월 현재 물오징어(1kg/중품)의 도매가격은 1만700원으로 전년도 1만 738원에 비해 소폭 낮아진 했지만, 2016년 7월 5615원이었던 것과 대비해 90%가량 비싸다. 향후 가을철까지 늘어난 어획량이 유지가 된다면 오징어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마트 광명점 수산 MD(상품기획자)는 “아직 예년 수준까지 회복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며, “매주 행사를 할 수 있진 않지만 제철 오징어를 맛보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상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 은행의 모든 것을 한번에 편하게! 저와, 한편 하실래요?

은행과 기술이 NH스마트뱅킹one up으로  
스마트하게 한편이 되었습니다.  
은행의 모든 것을 한번에 편하게!  
NH스마트뱅킹one up과 함께  
더 빠르고 편리해진 금융을 만나세요.

은행을 은행보다 스마트하게  
**NH스마트뱅킹one up**



**개인별 맞춤 서비스**  
고객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별 맞춤화면 제공 및  
금융상품 추천



**키보드뱅킹**  
문자나 SNS실행 중에도  
모바일 키보드를 이용한  
계좌송금 가능



**시상답톡**  
음성 및 텍스트를 활용한 banking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금융상담서비스 이용 가능



**모바일 OTP**  
기존 실물 OTP를 대체한  
1인 1폰에서만 발급되는 모바일 시스템으로  
보안성과 편리성 강화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상품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1900001702 (2019.05.15.~2020.05.31.) ※ NH농협은행 디지털채널부 개발상품

**NH농협은행**



이 시대의  
트렌드

## 올 여름휴가는 농촌에서 즐기는 뉴트로 감성여행 전국 팜스테이 마을에서 즐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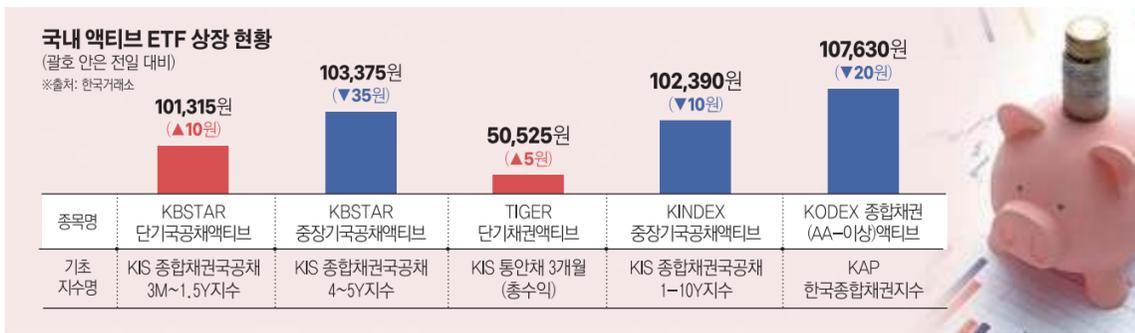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 NH 농협

# ‘주식형 액티브 ETF’ 도입 성공할까?

채권형 대비 전략 노출 위험 커  
글로벌 시장서도 인기 없지만  
투자자 니즈 맞춤 라인업 편  
시장 ‘다크호스’로 부상 가능

주식형 액티브 ETF(상장지수펀드) 상장을 앞두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라인업 다양화에 반색하면 서도 제도 보완 등을 주문하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반기 중 주식형 액티브 ETF가 최초로 상장할 전망이다. 현재 상장된 액티브 ETF는 총 7건으로 모두 채권형이다. 패시브 위주의 운용 전략을 펼치던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액티브 ETF는 코스피나 코스닥 등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형 ETF와 달리, 펀드매니저의 고유 재량으로 편입 종목, 매매 시점 등을 직접 결정해 운용하는 상품이다.



국내에는 KBSTAR 단기·중장기국채액티브, TIGER 단기채권액티브, KODEX 종합채권(AA-이상), ARIRANG 단기채권액티브 등 채권형만 상장돼 있다.

한지영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에서도 액티브 ETF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는데, 미국에서도 상위 20개 중 18개가 채권형”이라며 “특히 주식형 액티브 ETF의 경우 약 40% (94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어 “투자자들의 니즈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라인업이 출시되면 시장의 다크호스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주식형 액티브 ETF는 운용전략 노출이라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ETF는 법규상 의무적으로 PDF(납부자산구성내역)를 매일 공시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주식형 액티브 ETF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의 종목선택 노하우나 운용전략 등이 노출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공개된 종목을 선행매매하거나 무임승차에 나서면 매니저가 원하는 가격에 매매하지 못한다는 리스크도 있었다.

이런 문제점 극복을 위해 한국거래소는 인공지능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매니저가 아닌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혁신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며 “업계 협의를 거쳐 지수 대비 초과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주식형 액티브 ETF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주식형 액티브 상품이 도입된다고 바로 규모가 커지거나 자금이 모이진 않았지만 지금은 ETF 시장 정체기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기”라며 “상품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먹거리 제공 시도라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벤치마크와의 상관관계 완화를 주문했다. 가령 벤치마크로 코스피를 추종하는 액티브 ETF의 상관관계수가 1이라면, 코스피가 10% 오를 때 ETF 수익률도 같아야 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될 수 있다.

이어 “현재 액티브 ETF는 채권형에 맞춰 0.7로 설정돼 있는데, 주식형에 맞는 상관계수를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이 완화된다면 상품이 유연해지고 다양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 “5G 빅사이클 진입... 올해 사상 최대 매출 도전”

기업 주식 담당자

### 주담과 Q&A

#### 유니퀘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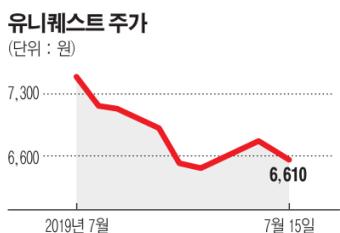
유니퀘스트가 5G 인프라, 유선 10기가 통신 서비스 구축 등 빅사이클(호황기) 진입 효과로 올해 사상 최대 매출에 도전한다.

-주력사업은?

“시스템 반도체로 알려진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을 주력 사업으로 1993년 설립됐다. 고객사들의 요구를 반도체 회사에 제공하고, 유통사는 중간에서 솔루션 제공·기술지원을 통해 고객사 제품에 최적화된 비메모리 반도체 모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주요 고객사는?

“인텔, 퀄컴 등 50여 개 공급사의 비메모리 반도체 등을 삼성전자, LG전자 등 1000여 개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다. 통신 네트워크 장비, 자동차 전장 등 모든 산업 분야에 비메모리 반도체를 납품



하고 있다. 기술력, 자금력 등을 바탕으로 M&A 이후 도태된 유통사의 물량까지 추가로 수수받고 있다. 시장지배력 강화와 함께 매출 증가에도 성공했다.”

-성장동력은?

“특히 통신, 자동차 분야에서 성장이 기대된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각각 20%, 40%를 차지한 사업 부문이기도 하다. 현재 통신 무선망과 유선망 네트워크에서 거의 모든 통신장비에 비메모리 반도체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5G와 유선 10기가 통신 서비스의 인프라 구축이 이뤄지면서 빅사이클 진입 효과로 대규모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스물셋비 비메모리 반도체 모듈의 공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본다.”

-비상장 계열회사 PLK테크놀러지는?

“현대자동차 사내벤처로 출범해 2003년에 창업한 회사다. 현재 유니퀘스트가 지분 58%, 현대기아차그룹도 6.1%를 보유하고 있다. PLK는 비전 기반의 자율주행 디러닝 알고리즘 기반 기술을 갖고 있다. 특히 PLK의 자율주행 기술은 3D맵 고정밀 지도 구축을 하지 않고도 상용화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국내외 카셰어링 업체와 중국, 베트남 등 자동차 개발 후발 국가들의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자율주행 기술과 모듈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투자 포인트는?

“올해 통신장비향 비메모리 반도체 모듈 성장 등 사상 처음으로 매출액 3000억 원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분 38%를 보유하고 있는 드림텍의 연결실적이 영업외이익으로 반영돼 당기순이익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익잉여금이 1800억 원 정도 쌓여있고, 상장사인 드림텍 보유지분 가치도 2000억 원대에 달한다.”

이정희 기자 ljh@

## G2 무역전쟁 등 국내외 여건 악화에도...

# 증권사, 2분기 실적 기대감 ‘쑥’

한은 기준금리 인하 수혜 기대 등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에 주가 상승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는 모습이다.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의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5728억 원으로 전년 동기(5622억 원) 대비 1.90%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메리츠증권은 전년 동기 대비 19.2% 늘어난 1300억 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셋대우도 같은 기간 0.2% 증가한 157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은 전년 동기보다 순이익이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초 시장 컨센서스는 상회할 것 이란 전망이다.

국내 증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자 주가 흐름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 실

제 증권업종 지수는 올해 2분기 코스피가 미·중 무역분쟁 격화와 국내 기업의 실적 부진 등으로 0.47% 하락하는 동안에도 10.04% 상승했다.

이 기간 유가증권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5조1205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4.84%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적과 주가 모두 선방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증권업종 이익 전망치의 전반적인 상향 조정이 이뤄지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낮아도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증권주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증권사들의 채권평가이익이 늘고 시장의 유동성도 커져 거래대금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당장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낮지만 결국 한은도 글로벌 흐름에 동참할 전망”이라며 “한은이 글로벌 통화안화 기조에 편승한다면 저금리 기초 속에서 수익률이 좋았던 증권업종의 주가 상승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 신흥, 실적악화 행진에도 오너家 ‘배당’ 그대로

1분기 영업익 전년비 84% 하락  
당기순이익 96% 줄어든 1827만원  
오너家 배당 5.7억 중 66% 쟁취

치과용 기자재 제조기업인 신흥이 실적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영 실적과는 별개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의 중간 배당을 결정했다. 신흥은 최대주주인 이용익 대표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77.9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주 환원 정책보다 오너일가 수익을 우선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신흥은 보통주 1주당 100원의 중간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5억 7258만 원이며, 최대주주는 50원, 소액주주는 100원으로 차등 배당된다.

신흥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1분기 기준 소액주주는 전체 주주 중 99.26% (2270명)를 차지하지만, 주식수는

신흥 실적·배당 추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분기
매출액	1244억 원	1211억 원	1215억 원	300억 원
영업이익	42억 원	40억 원	11억 원	3억 원
당기순이익	11억 원	32억 원	31억 원	1827만 원
배당금	11억4942만 원	11억5477만 원	11억5131만 원	
	중간 5억7474만 원 결산 5억7468만 원	중간 5억7828만 원 결산 5억7533만 원	중간 5억7598만 원 결산 5억7355만 원	중간 5억7258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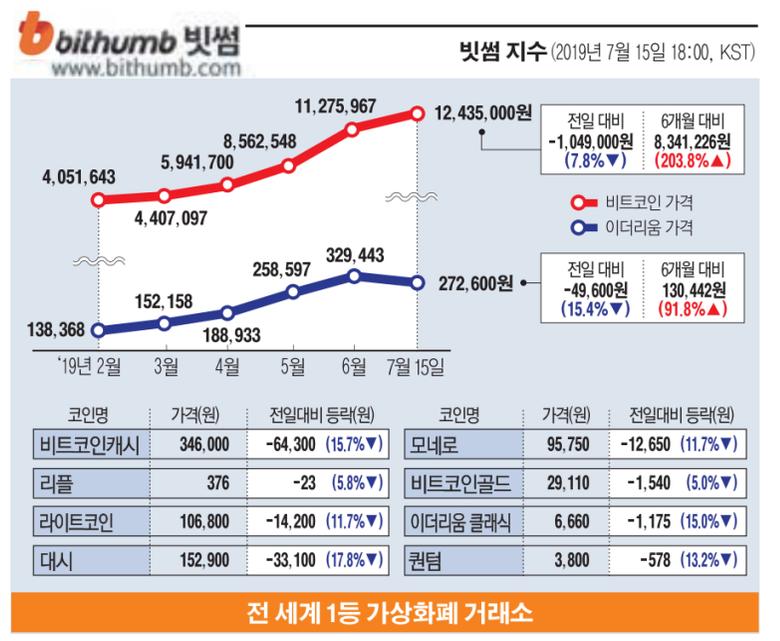
20.29%에 불과하다. 반면 최대주주이자 오너 2세인 이용익 대표를 비롯해 16인의 특수관계자가 지분 77.97%를 보유하고 있다. 이 대표는 21.24%, 창업주이자 부친인 이영규 회장과 형 이용현 부회장 지분율도 각각 13.06%, 10.75%에 달한다. 최대주주와 소액주주가 차등배당되더라도 배당금 중 66.65%는 오너일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

주목할 대목은 실적 악화가 뚜렷한 가운데 배당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흥의 영업이익은 42억 원(2016년)→

40억 원(2017년)→11억 원(2018년)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올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20억 원) 대비 84.3% 하락한 3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배당 재원이 되는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5억 원) 대비 96.1% 줄어든 1827만 원을 기록했다. 신흥은 실적과는 별개로 매년 11억5000만 원 규모의 배당 총액을 유지했고, 올해도 중간 배당 총액을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유헤림 기자 wiseforest@



〈평택〉

# 공급 과잉에도 집값 '쑥'... 고덕신도시 '기분좋은 집들이'

입주 본격화... 거래 늘고 프리미엄 7000만원 이상  
판교 1.5배 크기... 개발 초기단계로 상승여력 많아  
삼성전자 고덕에 신설라인 건설 예고도 큰 호재로

“아직 주변 인프라(기반시설)는 많이 부족하지만 몇 년만 있으면 크게 달라질 것이 확실한 만큼 기대를 갖고 입주했습니다.”(‘고덕 파라곤’ 아파트 입주자 김모 씨)

경기도 평택 고덕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침체한 인근 지역 주택시장과는 달리 달아오른 분위기가 완연히 감지되고 있다.

고덕 파라곤 아파트가 지난달 29일 첫 입주를 시작했지만 주변 지역은 공사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신도시 곳곳에서 주택과 상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입주를 시작한 단지들은 물론이고 입주를 앞둔 단지들의 분양권 거래가 쑥고 프리미엄(웃돈)도 적잖게 형성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고덕신도시에서 총 129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특히 아파트 입주를 앞둔 지난 2분기부터 거래량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4월 17건, 5월 29건, 6월 43건이 거래된 것이다. 그리고 이달 들어서도 벌써 15건이 매매됐다.

아파트값도 오르고 있다. 고덕 파라곤 전용면적 71㎡짜리 분양권은 3월 3억 9430만 원에 거래됐고 지난달에는 4억 490만 원에 팔렸다. 이 아파트 분양가가 3억 3000만 원대 였던 것을 감안하면 웃돈이 7000만 원 이상 붙어 거래된 것이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평택시 일대가 주택 공급 과잉 우려로 시세가 맥을 못추고 있지만, 이곳 고덕신도시는 판 세상이다”라며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잘 내놓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덕 파라곤뿐 아니라 고덕신도시에서



는 8월에는 ‘고덕 자연앤자이’가, 11월에는 ‘고덕 제일풍경채’가 집들이에 나선다. 때문에 이들 단지에 대한 매일 문의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전언이다.

고덕 자연앤자이(총 755가구)의 경우 이달에만 8건의 분양권 거래가 이뤄졌고, 지난달에는 무려 40건의 거래가 이뤄졌



다. 분양권 시세 역시 전용 84㎡가 4억 1000만 원을 넘어섰다. 인근 D공인 관계자는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웃돈이 2000만~7000만 원까지 붙었지만 찾는 사람이 꾸준한 편”이라고 전했다. 고덕신도시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가격 상승 여력이 더 많다고 판단한 실수요 및 투자수요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덕신도시는 판교신도시보다 규모가 약 1.5배 이상 넓기 때문에 크게 3단계로 나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는 수도권전철 1호선 서정리역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1단계 구간

내 들어서는 단지들이다. 2단계 구간 개발도 올해 본격화한다. 평택시청을 비롯해 행정기관 중심으로 개발되는 곳으로 평택 박물관·중앙도서관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고덕신도시에서 가장 핵심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공원과 수변공원 조성도 3단계 사업으로 예정돼 있다.

신규 아파트 공급도 잇따른다. 5월 ‘고덕 파라곤 2차’를 시작으로 7월 중에는 ‘고덕 리슈빌 파크뷰’ 등이 분양한다. 경기 남부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어질 평화예술의 전당도 올해 착공해 2021년 준공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최근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133조 원의 추가 투자를 발표하면서 고덕 국제신도시에 신설라인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것도 대형 호재로 꼽힌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평택 고덕신도시는 동탄신도시와 함께 ‘삼성 신도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며 “수도권 남부 최대 자족도시라는 기대감에 고덕신도시 부동산 시장은 평택의 구도심 지역과는 달리 상승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서울 아파트 분양가 1년새 21% ↑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빨라지나

3.3㎡당 평균가격 2673만원

서울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이상 올랐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은 353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3.3㎡으로 환산하면 1167만 5400원이다. 전월 대비 1.52%, 전년 동월 대비 9.66% 각각 상승한 수치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810만 원으로 전년 동월(669만4000원)보다 21.02% 올랐다. 3.3㎡ 기준으로는 2673만 원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을 고려 중인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같은 기간 18.05% 오른 550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5대 광역시(부

산·대구·광주·대전·울산) 및 세종시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372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85%, 전월 대비 0.03% 각각 상승했다.

기타 지방(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268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96% 오르는데 그쳤다.

아울러 지난달 전국 신규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1만8390가구로 전년 동월(1만 3009가구) 대비 41% 증가했다.

수도권의 신규분양 가구 수는 1만758가구로 이달 전국 분양물량의 58.5%를 차지했다. 전년 동월(7554가구) 대비 42%가량 증가한 규모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5579가구로 전년 동월(2254가구) 대비 148%가량 증가한 반면, 기타 지방은 2053가구로 전년 동월(3201가구) 대비 36%가량 줄었다.

한편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세부 정보는 HUG 홈페이지 또는 국가통계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지희 기자 jhsseo@

## 한신공영, 강북구 미아동 재건축 맡는다

203가구... 9월 분양 예정

한신공영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한신공영은 11일 미아동 3의 111 일대 재건축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신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도금액은 약 412억 원, 공사 기간은 30개월이다.

단지는 1만327㎡ 부지에 지하 4층~지상 11층짜리 아파트 6개 동, 총 203가구 규모가 조성된다. 조합원은 84가구를 제외한 119가구(전용면적 55~84㎡)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서울지하철 4호선 미아역과 미아사거리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화계초·송중초·창문여중·신일고 등 학교가 단지와 가깝다. 롯데백화점, 이마트도



강북구 미아동 주택재건축사업 조감도.

반경 1km 내에 자리잡고 있다. 9월 분양 예정이다. 입주는 2022년 2월로 잡혔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업계 상위권 건설사들도 서울 도심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전사적 노력으로 이뤄낸 쾌거”라며 “69년 전통과 역량을 통해 쌓아온 기술력을 집대성한 강소 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아이들이 더 행복해질 순 없을까?”

굿네이버스는 오늘도 고민합니다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행복한 세상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이들 편에 서주세요

**아이들 편에서  
놀이를 외칩다**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해례본>

# “훈민정음 상주본 국가 회수 정당” 서울에 ‘자전거 하이웨이’ 만든다

## 대법 “소장자 절도 혐의 무죄라도 소유권은 국가에”

배익기 씨가 소유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대한 문화재청의 반환 강제집행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주본 소장자 배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배 씨는 골동품 판매상 조모 씨로부터 2008년 무렵 고서적 2박스를 30만 원에 사들이면서 상주본을 몰래 끼워 넣는 방법으로 빼돌렸다. 조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심은 해례본을 돌려줘야 한다고 선고했고, 2011년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배 씨는 절도

혐의에 대해 2014년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조 씨는 2012년 5월 국가에 상주본 소유권을 기증하겠다고 밝힌 뒤 사망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이 상주본 회수에 나서자 배 씨는 “형사 판결로서 고서에 대한 절취 행위는 무죄가 확정됐으므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형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고서의 소유권이 배 씨에게 있어 민사 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배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고서의 소유권이 배 씨에게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2017년 4월 10일 배익기씨가 공개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일부.

2심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배 씨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 박원순 시장 ‘보행친화 도시’ 전략 차도 줄여 자전거 도로와 분리

“이동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라는 원칙 아래 자동차 위주로 설계된 교통 체계를 보행자, 자전거,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하는 보행친화 도시 신(新)전략을 기동하겠다.”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보고타 ‘시클로비아’를 방문해 ‘사람 중심의 자전거 혁명’을 선언하고 서울에 ‘자전거 하이웨이(CRT)’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 정책 수립 시 차도를 먼저 확보하고 공간이 남으면 보도를 만드는 산업화 시대 공식을 뒤집는 ‘보행 친화도시 신(新) 전략’을 기동하겠다고 선언한 것. 보행과 자전거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후 나뉠·전동휠 등 친환경·미래형 교통수단과 노상주차장·가로공원 등을 이후 고려하고 나머지 공간을 차도에 할애하는 내용이다.

시클로비아는 ‘자전거 길(ciclo+via)’이라는 뜻의 스페인어로 1982년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보고타 주요 간선도로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차 없는 거리 행사다.

서울시는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물을 설치해 ‘자전거 하이웨이’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차로 높이였던 기존 가로변 자전거 도로의 경우 현재 시가 추진 중인 녹색교통지역 확대, 도로공간 재편과 연계해 보도 높이로 조성한다. 과감하게 차도를 축소하고, 자전거 도로와 차로를 물리적으로 분리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한강 교량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자전거 도로망과 5개 생활권 자전거 특화지구 구성을 조성한다. 가양대교(서울식물원-하늘공원), 원효대교(여의도공원-용산가족공원), 영동대교(압구정로데오거리-서울숲) 등은 교량과 주변 관광자원과 연결해 피크닉, 나들이에 특화된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하고 자전거 도로의 접근성을 높인다. 문정, 마곡, 향동, 위례, 고덕강일 5개 도시개발지구는 총 72k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자전거 도로율 40% 이상) 마포이대여소도 집중 설치해 ‘생활권 자전거 특화지구’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하반기 3억 원을 투입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개소별·구간별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희 기자 jh6945@

## 고령자 신체능력 따라 야간·고속도로 운전 제한

### 경찰, 조건부 면허 검토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도가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무조건적인 면허취소가 아닌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신체능력에 따라 운전을 제한하거나 첨단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민감률 경찰청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고령이라고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능력에 따라 야간 운전을 제한하는 등 일정 조건과 함께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다각적 측면에서 조건부 면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이가 조건부 면허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운전능력 평가 절차 등을 거쳐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해외사례 조사, 전문연구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 “최저임금 약속 지켜라”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저지·노동기본권 쟁취·비정규직 철폐·재벌개혁·노동탄압 분쇄·최저임금 1만원 페기규탄 민주노동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요구가 담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뉴시스

## 김대중 웹툰전·노무현 시화전... 대통령 문화 추모 활발

전 대통령들이 웹툰, 시화전 등 감성적이고 대중적인 문화 이벤트의 주인공으로 새롭게 떠올랐다. 생전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고인의 인간적 면모를 재조명하고 있어 온 가족 나들이로도 제격이다.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하는 제23회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이하 SICAF 2019)은 정계 입문 전 사업가로도 역량을 펼쳤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간적 모습을 담은 ‘청년사업가 김대중 展’을 진행한다.

24일까지 제주 문학의 집 북카페에서는 서거 10주기를 맞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캘리그라피 시화전이 열린다.

전시회에서는 5월 발간된 노무현 추모 시집 ‘紅鬃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에 수록된 시 중 33편을 캘리그라피 작가들과 콜라베이션으로 작업한 작품을 선보인다. 시집에 수록된 작품 중 ‘노무현 정신’을 보여주는 구절을 중심으로 선별해 아름다운 캘리그라피로 재구성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강원도 원주에서는 최규하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 전시회가 25일까지 원주 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된다.

김소희 기자 ksh@

재미

공감

행복

## BRAVO My Life

# 정기구독하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잼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잼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잼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 제네시스 첫 SUV부터 픽업트럭까지... '신차 왕좌' 쟁탈전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 하반기 쏟아지는 국산 신차

올해는 어느 해보다 국산 신차가 풍년이다. 차 한 대 개발에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던 예전과 달리, 신차 개발 기술과 노하우가 늘면서 연구 효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엔진과 변속기 등 주요 부품 역시 기술수준이 안정화돼 이를 이용한 다양한 신차들이 쏟아지는 양상이다.

덕분에 5~7년이었던 신차 출시 사이클도 줄었다. 자연스레 '소품종 다량판매' 구조가 '다품종 소량판매' 형태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예전보다 고를 수 있는 차들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제 3~4년마다 후속 신차가 나오는 시대가 됐다.

소형 SUV '베뉴' 이어 '셀토스' 출시 예정  
 콘셉트카 모티프 'GV80' SUV 시장 도전  
 대형세단 'K9' 수준 '모하비' 신형도 나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반기에는 더 다양한 신차가 쏟아질 예정이다.

당장 이달 들어 기아차가 준대형 세단 K7 부분변경 모델인 'K7 프리미어'를 출시했다. 현대차는 코나 아

랫급 SUV로 '베뉴'를 내놨다. 이달 말에는 기아차 스포티지와 스톤 사이에 소형 SUV 셀토스가 파고들 예정이다.

남은 하반기에도 걸출한 신차 출시가 예고돼 있다. 먼저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GV80을 앞세워 처음으로 SUV에 도전장을 던진다.

구체적인 출시 시점과 제원 등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콘셉트카에서 보여준 갖가지 진기한 디자인이 고스란히 양산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형 세단 G90에서 보여준 5각형 크레스트 그릴, 전조등을 위아래로 나눈 쿼드타임 램프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현대기아차가 처음으로 시도한, 뒷바퀴를 전륜 직렬 6기통 3.0 디젤 엔진을 얹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기아차는 데뷔 12년을 넘어서고 있는 모하비 신형을 내놓는다. 울림 서울모터쇼에 선보인 콘셉트카 '모

하비 마스터피스'가 밑그림이다. 새 모하비에는 대형 세단 K9 수준의 다양한 첨단 장비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사라질 것으로 알려졌던 V6 3.0리터 S2 디젤 엔진과 8단 변속기를 유지하되 차 안팎을 화끈하게 바꿔 신차급 변화를 가져온 게 특징이다. 여기에 '보디 온 프레임' 구조 SUV 가운데 이례적으로 레벨2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담았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 밖에 현대차는 현행 6세대 그랜저IG의 부분변경 모델을 하반기에 선보인다. 아반떼 부분변경 모델과 8세대 쏘나타에서 보여준 디자인 터치가 새 모델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지엠은 북미 정통픽업 콜로라도를 8월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생산이 아닌 직수입이지만 쉐보레 브랜드 이미지 확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junior@

## 타보니

### 주행성능 기대 이상... 첨단기능 편한 운전

#### 현대차 베뉴

현대자동차가 '히려이프'라는 콘셉트를 내세운 '베뉴(Venue)'의 첫인상은 '다부짐'이다. 작지만 단단한 인상을 준다. 날렵한 방향지시등과 하단부 사각형 LED 주간주행등이 강렬한 인상을 더한다. 다만, 전면부의 캐스캐이딩 그릴은 다소 아쉽다. 철조망을 연상시키는 격자무늬는 팰리세이드처럼 보다는 큰 SUV 모델에 어울릴 법하다.

내부 공간은 생각보다 여유가 있다. 운전석에 앉아보니 키가 182cm인 기자의 머리 위로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 1565mm에 달하는 전고 덕분이다. 상위급 차종인 코나의 전고(1550mm)와 비슷한 수준이다. 뒷좌석 역시 넉넉하다. 성인 남성이 앉아도 앞좌석 시트에 무릎이 닿지 않는다. 실내 디자인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 8인치 내비게이션은 큼직한 화면을 자랑하고 공조 컨트롤 역시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 조수석 앞에 있는 작은 수납공간은 지갑이나 스마트폰 등을 놓기에 적합하다.

주행 성능은 엔진 크기 대비 기대 이상이다. 액셀을 밟을 때 가속감이 나쁘지 않고 브레이크도 즉시 반응한다. 고속도로 진입 후 운전모드를 스포츠로 설정하자 주행 성능에 변화가 느껴진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가속 시 차체가 앞으로 툭 튀어나가는 느낌이 강해진다. 시속 130km까지 가속하는 데에 무



리가 없다.

베뉴가 기본사양으로 갖춘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도 유용하다. 차로 이탈방지 보조 시스템은 곡선 도로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시속이 60km 이하로 내려가면 순식간에 시스템이 풀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버스전용차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때도 있어 긴장을 놓을 수는 없다. '나만의 자동차' 콘셉트를 강조하는 베뉴답게 차를 선호에 따라 꾸밀 수 있다. 지붕 색상상을 외부와 달리할 수 있는 '투톤 루프'가 대표적이다. 골라 만드는 재미가 있다.

베뉴는 현대차의 SUV 제품군 중 막내 격이다. 그럼에도 베뉴는 '갖출 건 갖춘 막내'다. 작지만 야무진 베뉴는 '히려이프'를 즐길 당산만의 공간(Venue)으로 손색이 없다.

유창욱 기자 woogi@

### 최고출력 266마력 "밟는 순간 땡~"

#### 기아차 K7 프리미어

첫 인상은 기괴하다. 이른바 그로테스크(grotesque) 디자인이다. 밑그림이 된 2세대와 비교해 전조등은 날카롭게 뿔아내 크기를 줄였다. 반대로 사이즈를 마음껏 키운 '프론트 그릴'은 과감하고 공격적이다. 마치 무언가를 가져다대면 단박에 집어삼킬 만한 과격한 모습은 윗급 대형 세단에 견줘도 모자람이 없다. 뒷모습은 한결 젊어졌다. 양쪽 테일램프를 LED 램프로 연결한 모습이 승명적인 맛수 현대차 그랜저IG를 의식한 모양새다.

도어를 열면 이제껏 보지 못한 우아함이 펼쳐진다. 실내는 현대차 그랜저IG는 물론, 인테리어 만들기가 경지에 다다른 인피니티(닛산의 고급 브랜드)와 견줘도 손색이 없다.

센터페시아 위에 심어놓은 12.3인치 디스플레이는 최근 트렌드를 거스른다. 대시보드를 뚫고 나온 이른바 '아웃대시 타입' 모니터가 넘쳐나지만 K7 프리미어는 단정하게 대시보드 위에 대형 모니터를 심었다. 오히려 잘한 선택이다.

손길이 닿고 시선이 머무는 곳 모두 이 시대 기아차가 빛어낼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감성품질들을 담고 있다.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첨단 기술도 모조리 쏟아냈다.

시승차는 V6 3.0 GDi 모델이다. 이밖에 차세



대 스마트스트림 계열의 △직렬 4기통 2.5 직분사 엔진을 비롯해 △직렬 4기통 2.2 R디젤 △V6 3.0 LPi도 나온다. 3.0 GDi 엔진은 비교적 고회전인 6400rpm에서 최고출력을 무려 266마력이나 뽑아낸다. 드라이브 모드를 D로 옮기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자 경쾌하게 정지상태를 벗어난다. 점잖고 우아한 운전석에서 만나는, 차고 넘치는 고출력은 어느 준대형 세단에 모자람이 없다.

K7 3.0 GDi는 극단적인 쥐어짤 없이 가진 출력을 여유롭게 뿌린다. 차고 넘치는 엔진 출력 덕에 어느 순간에서나 마음먹는 곳으로 차를 쉽게 던져낼 수 있다. 가벼우면서 육중한 힘에 익숙해지면 제법 날카롭게 빈자리를 찾아낼 수 있다.

K7 프리미어에는 과격함과 우아함이 공존한다. 꽤 공격적인 걸모습과 달리 실내는 우아한 감성품질이 녹아 내렸다. 김준형 기자 junior@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최경량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

Par5 3Shot 합산

# +100<sub>yd</sub> 더 나간다

1st Shot +30~50yd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30~40yd 세계 최초의 초고반발 우드 + 3rd Shot +30~40yd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205g~ 44%더 가벼운 세계 최경량 기술 × 최적화 기술 적용

## BIG BANG Light

모든 업체가 뱅골프의 고반발 기술을 따라하고 경량화 기술을 쫓아오지만 이미 뱅골프는 제3의 신기술 - 최적화 기술로 골프를 쉽고 편하게 하고 있다



### PGA 톱 프로처럼 클럽을 만들어 준다면 나도 프로선수 처럼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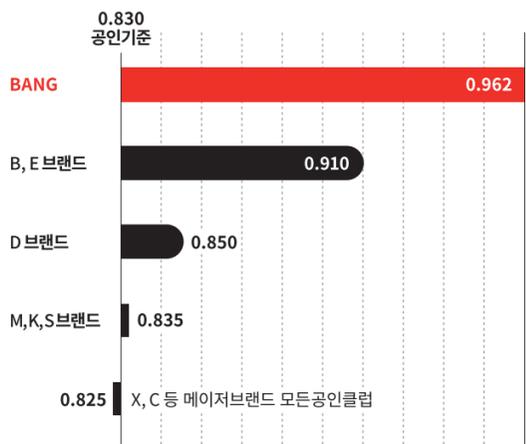
프로 골퍼가 잘 치는 것은 뛰어난 스윙 기술과 최적화된 골프채 덕분입니다. PGA 톱 프로는 첨단 스윙분석을 거쳐 그 프로에게 최적화된 수십 개의 클럽을 만든 후 그중에서 가장 감이 좋은 것을 골라 씁니다.

스윙기술이 부족해도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이 있는 뱅골프 클럽으로 PGA 프로처럼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골프채를 만들어준다면 나도 +30yd 더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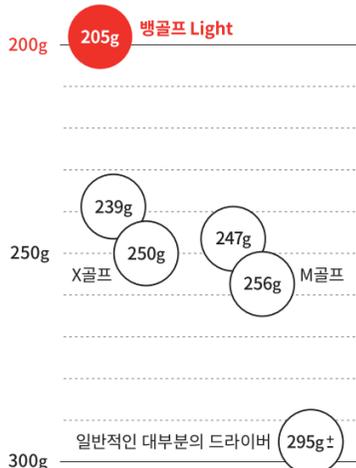
VVIP 고객님의 프로선수와 같은 관리 시스템으로 최적화 기술 적용 및 사용 후 수정 최적화

品格

### 고반발 기술 격차



### 경량화 기술 격차



### 최적화 기술 수준 격차

	BANG Light	타사
드라이버 사양 종류	999,000가지	획일적인 몇가지
드라이버 무게 종류	205g ~ 325g까지 120가지	단일 무게 혹은 몇가지
드라이버 강도 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SR, R, L 등 몇가지
우드/아이언 강도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R 두가지 안팎
아이언무게(9번 기준)	남 333g 여 312g	남 351g ~ 395g 여 326g ~ 368g
아이언 샤프트 종류	0.335 inch 최초 2~11번까지 번호별 샤프트	대부분 한가지 길이를 번호별로 잘라서 사용
헤드 무게 조정	120가지 헤드 무게로 헤드 교환 납을 사용하지 않음	납을 첨가하여 무게조정
드라이버 100yd 골퍼	스윙웨이트가 A8까지 있어서 누구나 딱 맞는 가벼운 클럽이 있다	무거워서 치기 불편하다

#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의 '스타트업' 조언 “사회적 가치 창출 목표를 원동력으로”

‘신한 퓨처스랩’서 기조연설  
“자본·노하우 등 초기 어려움  
자유의지·도전정신으로 돌파”  
신한서 지분투자·협업관계  
부동산P2P 업계 2위 도약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어려움과 마주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만든다는 목표를 원동력으로 삼으세요.”

서상훈(사진) 어니스트펀드 대표가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와 취업 준비생 앞에서 경험을 풀어냈다.

서 대표는 13일 서울 을지로 신한 엘타워에서 열린 ‘신한 퓨처스랩 스타트업 채용박람회 2019’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서 대표는 “초기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팀 구성, 자본, 노하우 등에 있어 여러 현실적인 변수와 어려움을 마주한다”며 “그런데도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간다는 공통의 목표가 사업을 지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스타트업에 모이는 인재들은

대부분 사회적 통념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성취와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분”이라며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자유의지와 도전정신을 통해 원하시는 목표를 꼭 이루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본인의 창업 과정을 주로 설명하면서 공감대를 넓혔다.

어니스트펀드는 2014년 말 법인 설립

계획 이후 2015년 2월 탄생했다. 신한 퓨처스랩과는 2015년 중순 1기로 선정돼 멘토링 등 사업 관련 지원을 받았다. 어니스트펀드 관계자는 “2017년에는 신한은행과 신탁관리 공동 시스템을 업계 최초로 개발하고 지분투자도 받았다”며 “현재까지도 긴밀하게 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양 사는 2017년 P2P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예치금 신탁관리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P2P업계 표준 기술로 삼았다.

아울러 어니스트펀드는 2016년 대비 2017년 390%, 2017년 대비 2018년 375% 성장하는 등 외연 확장에 성공했다. 현재 부동산P2P업체 순위 2위로 누적 대출금은 5200억 원에 달한다.

한편, 신한 퓨처스랩은 국내 스타트업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신한금융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신한금융그룹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내·외부 전문가 멘토링과 지분 투자 연결 등을 지원한다. 어니스트펀드는 이번 박람회에서 ‘부동산PF채권관리’와 ‘부동산PF영업’ 등 10개 부문에서 인재 채용을 진행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사진제공 어니스트펀드

## 트럼프, 민주당 여성 4인방에 “원래 나라로 가라” 이민자 출신 해당 의원들 “미국이 내 나라” 역공

도널드 트럼프(왼쪽 사진) 미국 대통령이 미 민주당 내 유색 여성 하원 의원 4인방을 겨냥해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고 비난하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 ‘진보파’ 여성의원들을 지켜보는 게 참 흥미롭다”면서 “이들은 완전히 재앙적이고 가장 부패하고 무능한 나라 출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미국이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 사납게 말하고 있다”면서 “원래의 나라로 돌아가서 완전히 무너지고 범죄로 들끓는 곳을 바로잡으면 어떤가”라고 비꼬았다.

트럼프가 지목한 여성 4인방 중 오카시오-코르테스(오른쪽 사진) 의원은 푸에르토리코계이며, 일한 오마르 의원은 소말리아계 무슬림, 라시다 탈

라입 의원은 팔레스타인 난민 2세, 아리아나 프레스리 의원은 흑인이다. 오마르는 소말리아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왔지만 코르테스는 뉴욕, 트라입은 디트로이트, 프레스리는 신시내티 출신이다.

트럼프의 트위터 발언 이후 여성 4인방은 “미국이 내 나라”라며 즉각 역공에 나섰다. 코르테스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내가 온 나라는 미국”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까지 포함하는 미국을 상상할 수 없어서 화가 난 것이다. 그는 그의 약탈에 겁먹은 미국에 기대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서영 기자 Jung2@

## 김세영, LPGA 마라톤 클래식 우승...통산 9승

총상금 175만 달러의 LPGA 마라톤클래식에서 김세영(사진)이 우승을 차지했다. 통산 9번째 우승이다.



김세영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샬비니아의 하이랜드 메도스 골프클럽(파 71·6561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마라톤 클래식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7개, 보기 1개를 묶어 6언더파 65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22언더파 262타를 기록한 김세영은 렉시 톰스(미국)를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 상금 26만2500달러(약 3억1000만 원)의 주

인공이 됐다.

김세영은 투어 통산 9승을 획 득했으며, 5월 메디힐 챔피언십에 이어 시즌 2승을 달성했다. 고진영(24), 박성현(26), 브룩 헨더슨(캐나다)에 이어 올 들어 네 번째 2승 선수가 됐다.

특히 통산 9승 성적은 박세리(25승), 박인비(19승), 신지애(11승)에 이어 최나연과 함께 LPGA 투어 한국 선수 다승 순위 공동 4위다. 이번 시즌 한국 선수들은 LPGA 투어 19개 대회에서 모두 9승을 합작했다.

김정용 기자 cogito@

## 현대차 5000대 판매거장 또 나왔다

종로지점 허정섭 영업부장 34년 만에 달성...역대 9번째

현대자동차에서 5000대 판매 거장이 나왔다. 역대 9번째다.

현대차는 15일 누계 판매 5000대를 달성한 서울 종로지점 허정섭(사진 오른쪽) 영업부장을 ‘판매거장’으로 임명했다.

‘판매거장’은 현대자동차 판매지점에 근무하며 누계 판매 5000대를 돌파한 우수 영업사원에게 부여하는 최고의 영예다.

이번 기록은 허 부장이 1985년 현대차에 입사한 지 34년 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연평균 147대, 매주 평균 3대를 판매한 셈이다. 이번 기록은 그의 철저한 고객 관리에서 시작했다. 34년 전, 허 부장이 처음으로 판매한 차의 오너는 여전히 그에게 신차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허정섭 영업부장은 2014년 5월 누계 판매 4000대를 돌파하며 ‘판매명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5년 만에 다시 5000대 기록을 썼다.

허정섭 영업부장은 “판매거장에 올라대



단히 영광스럽고 저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않고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or@

## ‘청산도 생명 지킴이’ 이강안 원장, 중외복지재단 ‘성천상’

아무 연고 없는 폐원 위기 섬마을 병원서 16년째 헌신

전라남도 최남단 청산도에서 홀로 인술을 펼치며 여생을 바치고 있는 이강안(83·사진) 푸른뇌중양의원 원장이 올해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JW그룹의 공익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제7회 성천상 수상자로 이 원장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성천상은 국내 최초 수액제 개발과 필수약품 공급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고(故) 성천 이

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을 기려 을지에서 묵묵히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인류 복지 증진에 공헌한 참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이 원장은 ‘부와 명예보다 희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신념 아래 안정된 노후 생활 대신 아무런 연고 없는 전남 완도군 청산도와 인근 섬마을의 유일한 의사로서 16년째 헌신하고 있



다. 1962년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는 잠실병원 부원장, 해민병원 원장을 거쳐 1993년 서울화곡동에서 이강안 의원을 개원해 10년간 운영했다. 이후 근무 의사가 없어 폐원 위기에 처한 푸른뇌중양의원 의 소식을 접하고 2004년 원장을 자임했다. 이 원장은 생업에 바쁜 주민들을 위해 오전 7시 40분부터 진료를 시작해 하루 평균 120명의 환자를 돌본다. 지난 16년간 수행한 외래진료는 48만 건에 달한다. 유혜은 기자 euna@

## 당도·유지방 등 휴대용 농식품 측정기 개발

스트라티오코리아 ‘7월의 A-벤처스’ 선정

유망 농식품 벤처기업인 ‘7월의 A-벤처스(어벤처스)’로 휴대용 농식품 품질측정기 개발 기업인 ‘스트라티오코리아’가 선정됐다. 어벤처스는 농식품 벤처(Agri Venture)와 농식품 산업을 이끌어갈 ‘어벤처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2013년 문을 연 스트라티오코리아는 휴대용 분광기를 통해 농식품의 품질을 측정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시광선과 근적외선 분석을 통해 쇠고기 신선도와 과일 당도, 유지방 함유량뿐 아니라 비아그라 등 의약품의 진위까지 가려낼 수 있

다. 이 같은 차별성 덕분에 스트라티오코리아는 지난 2년간 29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최근엔 미안마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도항(抗)말라리아제 진위 판명 사업을 진행하는 등 동남아시아 식품·의약품 안전 사업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 게시판

### 소비자원 분쟁조정팀 이남경 상임위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으로 이남경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임위원은 사법연수원 32기로 창원지검과 의정부지검 등에서 근무한 뒤 2011년부터 변호사와 변리사로 활동해왔다. 임기는 2022년 7월 14일까지다.



### 자치분권위원회에 최상한 교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최상한(56)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최 신임 부위원장은 지방분권 전문가로 현재 한국지방정부학회 부회장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유희유공업협회 25대 회장에 강진원 한국셀섹유 사장 취임

강진원 한국셀섹유 주식회사 사장이 한국유희유공업협회 제2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15일 한국셀섹유에 따르면 2013년 12월부터 한국셀섹유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강 신임 협회장은 약 3년간 한국유희유공업협회를 이끌게 된다. 협회장 임기는 2022년 6월 18일까지다.

강 신임 협회장은 정부와 업계 간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유희유 시장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변효선 기자 hsbun@



## 인사

◆보건복지부 ◇전보(과장급)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장 김건훈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장 김일열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 정인호 △국립소록도병원 서무과장 윤대중

◆특허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상표디자인심사국장 김성관 △특허심판원 심판장 이재우

◆EBS ◇부장 승진 △마케팅기획부장 김철범 △콘텐츠관리부장 오정호 ◇부장 전보 △콘텐츠사업부장 권혁미 △온라인사업부장 공찬식 △대외협력부장 최남숙

◆중앙그룹 ◇중앙일보플러스 △중앙 CEO아카데미원장 겸 CP&라이프본부장 홍병기

## 부음

▲윤강태 씨 별세, 윤호성(KT 차장) 씨 부친상, 손영득(쑤한국고용정보 대표이사) 씨 장인상 = 14일, 서울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16일 오전 10시, 02-2030-7901

▲강복진 씨 별세, 김형주(중부발전 과장)·형규·희순(서울아산병원 적정진료팀 차장) 씨 모친상, 심창범 씨 장모상 = 14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4호실, 발인 16일 오전 9시, 02-3010-2294

▲감양상 씨 별세, 감명국(시사저널 취재1팀장)·혜진(투비아이에스컨설팅 부장) 씨 부친상, 김경숙·김미정 씨 시부상, 주진호(옥타솔루션 이사) 씨 장인상 = 14일, 고대 구로병원 장례식장 B105호실,

발인 16일 오후 1시, 070-4710-1826

▲최영아 씨 별세, 하찬기=은희(인천 정라유치원 원장) 씨 모친상, 하종민(뉴시스 경제부 기자) 씨 조모상 = 14일, 인천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6일 오전 11시, 032-817-1024

▲박재규 씨 별세, 오주승(전남평생교육진흥원장) 씨 장인상 = 14일, 화순 전남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발인 16일 오전, 061-379-7433

▲문식 씨 별세, 문석훈(이루다금샘 대표)·종훈(디오션리조트 홍보기획팀장)·훈미(최상위 에듀 부원장)·훈경(광주 효광중 교사) 씨 부친상, 양진형(한국석유유통협회 전무) 씨 장인상 = 14일, 광주 광산구 우산동 만평장례식장 202호, 17일 오전 9시, 062-611-0000

추창근 칼럼



논설실장

과거에 갇혀 미래 싸움에서 지는 거다

우리는 늘 반성 없는 일본에 분노하고 비난만 해왔지, 그런 나라를 이웃에 둔 숙명에 대한 자각이 없었다. 그러니 또 당한다. 일본이 한국을 크게 흔들어 위기로 몰아넣을 전략을 세우고 치밀한 작전을 짰 때 우리는 무얼 하고 있었나. 과거만 파헤칠 뿐 일본을 알려 하지 않았고, 그들을 넘어설 미래의 국가전략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무방비 상태에서 급소를 찔린 일본의 습격에 한국 경제는 치명적인 내상(內傷)을 피하기 어렵다.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전략 차원의 작심한 도발이다. 우리가 훨씬 불리한 전쟁이다. 1차 표적인 반도체에 그치지 않고, 일본은 화이트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빼기로 했다. 전방위 타격으로 한국 경제의 근본을 위협해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의도다.

아베(安倍晋三) 정권은 오래전부터 기회를 노리고 칼을 갈아왔다. 한국이 일본을 넘보지 못하도록 이번엔 확실히 주저앉히고야 말겠다는 국가 전략의 흔적(本音)을 노골화한 것이다. 글로벌 기술패권을 장악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총돌, 미 트럼프가 촉발시킨 보호주의에 편승해 실행에 나섰다고 봐야 한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발미가 됐다.

한국의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 성장은 일본을 배우면서 따라잡고 극복하는 과정이었다. 대표기업 삼성전자는 과거 산요의 기술을 얻어 흑색TV와 냉장고를 만들었고, 반도체는 NEC를 벤치마킹했다. 산요와 NEC는 지금 사라졌

다. 일본이 구가했던 '전자왕국'은 한국에 밀려 패퇴했다.

그러나 우리는 핵심소재와 부품의 일본 의존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일본은 그 덩미를 잡아 한국을 외통수에 몰아넣었다. 글로벌 공급망의 충격, 자국 산업 피해를 감수하면서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타격할 것은, 이 싸움을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를 집착하게 해준다. 일본은 1997년 한국에서 가장 먼저 돈을 빼가고 채권 만기 연장을 거부해 외환위기의 방아쇠를 당긴 나라다.

일본 우익(右翼) 세력이 획책하는 제국(帝國)주의 부활이다. 독일은 끊임없이 과거 히틀러의 죄악을 무릎 꿇고 사죄한다. 그러나 일본 우익에게 그런 양심은 애초부터 없고, 주변국들에 재앙을 안겼던 역사마저 부정한다. 히로시마 평화기념관에 가보면 그 본색을 알 수 있다. 1945년 8월 6일 핵폭탄 '리틀보이'가 떨어진 직후의 지옥과 참상의 흔적을 끌어모아 재현한 곳이다. 하지만 스스로 파멸을 부른 태평양전쟁 도발의 반성이라곤 전혀 없다. 주변국을 유린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준 학살

과 만행은 숨기고, 자신들의 피해만 부각시켰다.

그 우익의 집합체가 자민당(自民黨)이다. A급 전범(戰犯)이었으나 단죄되지 않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가 1955년 '보수합동'을 주도해 성립시켰고, 그 자신 1957년 집권했다. 자민당은 1993~94년과 2009~12년의 잠시 동안 실각했을 때를 빼고 전후 일본 정치를 줄곧 지배하고 있다. 그들이 집력을 정당화하고 과거를 미화하는 데 광분한다. 지금 아베는 기시의 외손자다. 19세기 막부시대 말기 정한론(征韓論)을 주장했던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은 아베가 가장 숭배한다는 인물이다.

일본론의 고전 '국화와 칼'을 쓴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을 '손에 평화를 상징하는 국화를 들고, 허리에는 칼을 해치기 위한 칼을 숨긴 존재'로 간파했다. 아베가 그 본성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늘 반성 없는 일본에 분노하고 비난만 해왔지, 그런 나라를 이웃에 둔 숙명에 대한 자각이 없었다. 그러니 또 당한다.

이번 싸움 또한 길어질수록 우리가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하는 구조다. 지금 발동

의 불을 끄는 것만큼 급한 건 없다. 사태를 봉합하기 위해 외교적 굴욕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돌파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냉혹하고 절박한 현실이다.

국가 역량과 전략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크게 흔들어 위기로 몰아넣을 전략을 세우고 치밀한 작전을 짰 때 우리는 무얼 하고 있었나. 감성적 민족주의에 기댄 반일(反日)의 이념, 친일 잔재 청산에만 수십 년째 매달렸다. 과거만 파헤칠 뿐 일본을 알려 하지 않았고, 그들을 넘어설 미래의 국가전략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의 배 12척'(尙有十二)을 언급했다. 100여 년 전의 '국채보상운동'과 '동학농민혁명', '항일 의병'을 운운하는 사람도 있다. 강대국 총돌의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생존전략을 말하는 이가 없다. 미래를 밝은 눈으로 보고, 극일(克日)의 큰 그림을 깨우치는 지성은 외면당한다. 과거의 프레임으로 절대 미래를 이길 수 없다.



조에린의 벤처칼럼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경영학과 교수

벤처 창업, 아이디어는 그림의 한 조각일 뿐

아무래도 가르치고 연구하는 분야와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일부러 마련된 자리가 아니라도 수시로 들리고 나누는 대화가 벤처에 관한 이야기이다. 벤처를 시작하고 싶다는 말부터, 자신이 어떤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지 설명하는 상황, 반대로 어떤 벤처에 얼마의 투자를 결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마주하게 된다. 이런 대화들이 오가면, 필자가 그 일에 어떤 형태로 직접까지 않아도 종종 그 내용을 평가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거론되는 거의 모든 모델은 어느 정도 참신한 아이디어라든가 기술적으로 차별화와 경쟁력이 보이는 것들이다. 즉 이제는 대부분의 아이디어가 관심을 끌게 하는 요소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가 경제성이 있는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가의 기준에서는 대부분 그

임계점을 넘지 못한다.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가의 평가는 그 모델이 ①현재 옵션들이 제시하는 행동 패턴이나 문제해결 방식의 효율성, 기능성,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거나 ②불편함을 인식하고 있으나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던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거나 ③소비자들이 필요하다고 인지하지 못했던 잠재적 요구를 발견해 만족시킬 수 있는가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이 세 가지를 시작으로 그다음 단계는 벤처 모델이 금전적, 기능적, 효율적, 사회적 가치 등을 구체적으로 만족시키는지를 분석한다. 즉 위의 세 가지 유형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모델이 ①소비자에게도 생산자에게도 적절한 가격으로 생산되고 분배될 수 있는 것인지 ②약속한 기능이 얼마나 문제없이 사용자에게 어렵지 않게 구현될 수 있는지 ③모델 구현이 현재 그리고 조금 미래에 나올 기술의 향상에 얼마나 취약한지 ④소비자가 그 모델을 사용할 때 자신이나 사회 속에서의 자아 인식

에 긍정적인 수 있는지 등의 차원이 고려된다.

그러나 위 두 분석에서 긍정적 가능성을 보인 벤처라 하더라도, 거의 80%의 경우가 마지막 관문인 확장 가능성에서 탈락하게 된다. 바로 '얼마의 비용으로 얼마나 빨리 확장이 가능한지, 더불어 5년 내에 그 확장의 범위가 얼마인지'라는 평가 부분은 벤처의 미래 역량을 보는 것인데, 이 단계로 들어가면 벤처 아이디어 모델 자체의 가치를 넘어 모델 구성원의 역량이 크게 부각된다.

즉 어떤 팀이 이 모델을 끌고 가는지, 그 팀 구성원의 내적 성향, 인생 궤도, 기업 경력, 영업 역량 등이 집중적으로 고려된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런 평가는 벤처 창업자에게 집중되었는데, 요즘은 벤처 운영과 결정에 비교적 가까이 관련된 팀 전체와 파트너의 역량까지 평가 범주에 들어오고 있다.

벤처 이야기가 일상생활 속으로 많이 들어온 듯하다. 심지어 커피점에 앉아 있어

도 종종 어떤 벤처를 하고 있고, 어떤 벤처에 투자했다는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듣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벤처 투자는 경험, 감, 또는 남에게 위탁하는 방식의 결정 경로를 취했다.

그러나 이제 벤처의 수가 많아지고 비슷한 모델들이 나오면서, 특히 벤처는 실패라는 더 큰 확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며 좀 더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벤처를 한다 혹은 투자를 한다는 결정이 벤처의 아이디어에 집중되고 있는 듯하다. 벤처의 아이디어가 참신하다는 것은 큰 그림의 한 조각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 크고, 사실은 더 쓴 조각은 필자가 뒤에 지적한 부분이다. 벤처를 생각하고 있거나 초기 벤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의 평가 기준을 인지한다면 벤처를 구상하고 팀을 구성하는 데 좀 더 탄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하인리히 빌 명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많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배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른다."

반(反)군국주의자-가톨릭 좌파로, 작품을 통해 현실 변혁을 꾀한 독일 소설가.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등 독일 사회의 도덕성 결여를 지적한 작품을 주로 썼다. 오늘날은 그가 세상을 떠난 날. 1917~1985.

☆ 고사성어 / 구밀복검(口蜜腹劍) 입안에는 꿀을 담고 뱃속에는 칼을 지녔다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체하지만 속으로는 해질 생각을 품고 있음을 비유하는 말. 출전은 십팔사략(十八史略). 당(唐)나라 현종(玄宗) 때 이임보(李林甫)는 환관(宦官)에게 뇌물을 바친 인연으로 왕비에게 붙어 현종의 환심을 재상에 오른 사람이다. 이임보를 두고 사람들이 한 말에서 유래했다. "이임보는 현명한 사람을 미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질투하여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배척하고 억누르는, 성격이 음험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입에는 꿀이 있고 배에는 칼이 있다고 말했다[李林甫口蜜腹劍]."

☆ 시사상식 / 밀레니얼 세대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 정보기술(IT)에 능통하며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에 진출해 고용 감소, 일자리 질 저하 등을 겪은 세대이기도 하다.

☆ 속담 / 앞에 와서 꼬리치는 개가 뒤에서 발뽀구치 문다 앞에 와서 살살 비위를 맞추는 자일수록 뒤에서 해코지를 잘 한다.

☆ 유머 / 아쁠사 장모에게 '건강하시고 오래 사세요'라고 간만에 문자를 보냈는데 반응이 탐탁지 않아 보낸 문자를 다시 꺼내봤다. '건강하시고 오래사네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원 청사. 매일 수백 건의 크고 작은 재판이 열린다. 법정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의 장면을 예상했다면 오산이다.

결심 공판(심리 종결)에서 피고인은 검사의 구형을 통해 형량을 처음 접한다. 오랜 수사과 재판으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마주한 숫자는 공포다.

구형 후에는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진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정과 당시의 상황 등을 최대한 설명하며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낮춰 달라고 선처를 호소한다. 물론 몇 마디의 말로 재판장의 마음이 바뀌진 않겠지만 바로 옆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겐 천금 같은 시간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선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다.

김중용 사회경제부/deep@



이방인이 된 소송 당사자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검사는 어떤 이유로 구형량을 정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어정쩡한 자세로 일어서 속사포처럼 자기 할 말만 내뱉는 변호인도 상당수다. 정해진 임무를 끝내기 위한 기계적인 모습이다.

며칠 전 한 절도 사건의 결심 공판을 방

청했다. 마침 법원에 견학을 온 초등학생들도 함께였다. 법정이 소란한 것도 아닌데 검사와 변호사의 말은 잘 들리지 않았다. 그저 웅얼거림이다. 아이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아이가 친구에게 물었다 "뭐라는 거야? 들려?"

반면 피고인은 한 자 한 자 꼭꼭 눌러

종이를 들고 자신을 변론했다. 이 한 마디로 형량이 바뀌기라도 할 것처럼 신중했다. 긴장해서인지 손을 떨며 간혹 울음을 참기도 했다.

대부분의 국민은 법원에 갈 일이 없다. 형사 사건으로는 더욱 그렇다. 다만 예기치 못한 일에 휘말렸을 때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으로 믿는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자기 일처럼 여겨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말이다.

판결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 가족의 삶까지 좌우한다. 소송 당사자들은 매 순간 간절할 수밖에 없다. 법정 안 사람들은 관망자가 아닌 주체자여야 한다. 그들의 성실한 자세와 세심한 배려가 아쉽다.

# 유니클로·아사히맥주는 사지 않지만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일본 SPA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 매장은 지난 주말 세일 기간이었음에도 평소와 달리 한산했다. 일부 마트 매장에는 “일본산 제품을 팔지 않는다”는 포스터가 내걸렸다. 편의점에서는 일본산 아사히맥주, 기린맥주 판매량이 급격히 줄고 휴가철을 앞둔 여행사에는 일본 여행 예약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리얼미터가 지난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향후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10명 중 7명(66.8%)이나 됐다.

불매운동은 확산되는 분위기이지만 불매운동이 감정적인 분풀이에 그칠 뿐 일본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안다. 2013년 독도 영유권 분쟁이 한창이었을 때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본 제품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 불매운동이 일어났지만 반짝 움직임에 그쳤다. 실제로 그로 인해 타격을 입은 일본 기업은 없었다.

유니클로를 사지 않는다고 해서 의류 소비가 고스란히 국내 의류 브랜드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아사히맥주를 사지 않는 대신 하이트 맥주만 사는 것도 아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 관광을 자제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인 750만 명이

## 데스크칼럼

이효영

부국장 겸 유통비이오부장



일본을 방문한 데 비해 일본인은 300만 명이 한국에 오는 데 그쳤다. 일본을 찾아가는 한국인이 단기간에 절반으로 줄어든 연 30억 달러가 넘는 대일 관광수지 적자를 흑자로 돌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하코다 데쓰야 아사히신문 국제 담당 논설위원은 최근 칼럼을 통해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호소하는 반일(反日)은 영향력이 약할 것이며 일상생활과 유리된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이번에도 불발로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두언 전 국회의원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승용차와 트럭이 서로 마주보고 달려오면 누가 피해가 크겠느냐”라며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불매운동이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 기업의 고용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던 국내 관광업계는 성수기를 앞두고 이달 들어 일본 여행을 취소한 소비자가 늘자 일본 불매운동의

불뚝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당장 국내 주기도 경제상황을 우려해 흔들리고 있다.

결국 핵심은 불매운동이 아닌 얘기다. 맥주나 옷은 대체재가 얼마든지 있지만 반도체 소재와 부품은 현 상황에서 대체재가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만으로 반도체 강국이라는 위상이 흔들릴 수 있는 우리 산업구조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와 별도로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은 물론 일본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의존도 높은 시장을 다변화하고 기술 독점을 추진하는 등 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단기적으로는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정치적인 해결 노력에 나서야 한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이어 이번엔 일본의 무역 보복에 맞닥뜨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 아베 일본 총리 등 강력한 정치 권력의 등장으로 ‘세계화’ ‘자유화’로 대변되던 세계무역질서가 기술 패권을 둘러싼 전쟁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다음엔 또 어느 나라가 싸움을 걸어올지 모른다. 그때마다 기업들이 위기를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고, 국민들이 불매운동에 나설 수는 없는 일이다.

hylee@

## 사설

# 위기 외면하고 총파업한다는 민노총

민노총이 18일 총파업을 강행기로 했다. 민노총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를 선언하고,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가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올린 시급 859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한 반발이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친재벌 노동배제 행보를 멈추지 않고, 반노동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고 주장했다.

나라 경제의 위기를 외면한 민노총의 끝 간 데 없는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통해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면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어려워진 데 대한 노동계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2년간 29.1%나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의 임금부담을 키우고 생존의 위협으로 내몰면서, 결국 고용참사와 소득 분배 악화를 불러온 부작용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김상조 실장도 최저임금 정책이 ‘을(乙)과 을의 전쟁’으로 비화돼 사회갈등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제라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막무가내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과 공익위원들이 참여한 공식적인 협의·결정기구다. 이번 결정도 진통 끝에 내려진 것이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에 불복하고, 무분별한 파업만 고집하고 있다. 어떤 명분도 없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만 증폭되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에서의 한국 배제는 우리 주력산업 전반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위협 요인이다. 어떤 업종, 어떤 기업도 안심할 수 없다.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정부는 총력대응에 나선다지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성장 후퇴는 당연한 결과다. 이미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한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올해 2%대 초반 성장을 달성도 어렵고, 1%대 성장을 점치는 곳도 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기업 신용등급의 잇따른 강등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민노총의 파업은 산업 피해를 더 키워 위기를 가속화하면서, 결국 국민들의 고통만 심화시킬 뿐이다.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키겠다는 반(反)사회적 행태다. 총파업이 철회돼야 할 이유다. 정부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엄정한 법집행으로 다스려야 한다.

## 조남호의 증권난방



자본시장1부 차장

# 다시 불거진 공매도 논란

가면 다시 주식을 매입해 값증으로써 2000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공매도는 이러한 특성으로 대체로 하락장에서 수익 내기에 유리하다. 특정 종목의 가격이 단기간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늘려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한편, 거래되지 않는 주식을 활용함에 따라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높인다.

하지만 그 한계 또한 명백하다. 악의적인 세력에 의해 시세조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과거 셀트리온 사태가 대표적이다. 셀트리온은 2012년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시가총액이 수조 원 날아갔다. 이후에도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2014년에는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또 증권사가 계좌 주인의 허락 없이 주식을 대여한 흔적이 발견되면서 주식대여 서비스가 없는 증권사로 계좌를 이동하는 등 주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공매도가 가진 또 다른 한계는 현실적으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기관과 외인보다 여실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개인투자자도 증권사에 일정 보증금을 예치하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력의 비대칭과 낮은 신용도 때문에 실질적

인 이용이 어렵다.

올해 1분기 외인의 공매도 거래는 65%, 기관은 37%지만 개인은 1.3%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공매도 거래의 피해를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는 개인투자자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공매도가 ‘그들만의 리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은 금융당국도 인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재 강화와 함께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자격 요건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들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주가 하락을 예측해야 하는 공매도 거래에서 정보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관과 외인의 정보력을 개인투자자가 앞설 수 없음을 자명하다. 자금력 역시 마찬가지다. 개인의 공매도 활성화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다. 공매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적어도 개인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지 못한 룰을 조절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spdran@



## 두루치기

음식점 골목이라면 어디라도 ‘돼지고기 두루치기’라는 간판 한들쯤은 눈에 띈다. 생돼지고기를 갖은 야채와 함께 약간의 국물이 있도록 볶은 음식을 일러 두루치기라고 한다. 재료 구하기나 요리법이 쉬운 데다가 누구의 입맛에도 쉽게 맞출 수 있는 요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곳곳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요리이다.

두루치기는 ‘두루’와 ‘치다’의 명사형인 ‘치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두루는 ‘빠짐없이 골고루’ 즉 ‘두루두루’라는 뜻이다. ‘치기’의 원형인 ‘치다’는 원래 ‘손이나 손에 든 물건으로 뭔가를 세게 부딪치게 하는 행위’를 이르는 동사인데 이로부터 파생하여 달리 ‘섞을 치다’에서처럼 ‘섞을 맞추다’, ‘계산에 넣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또 ‘...한 셈 치다’에서처럼 ‘어떠한 상태라고 인정하거나 사실인 듯이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말이다. 따라서 ‘두루 치다’는 ‘두루두루 맞추다’, ‘두루두루 한 셈 치다’라는 의미로서 ‘포괄적’, ‘중

합적’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는 말이다. 그러므로 국어사전은 ‘두루치기’를 ‘한 가지 물건을 여기저기 두루 씌. 또는 그런 물건’, ‘두루 미치거나 두루 해당함’이라고 풀이하고 있으며, 여기서 더 진화하여 ‘한 사람이 여러 방면에 능통함. 또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풀이도 하고 있다. 두루치기는 팔방미인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우리에게 무역보복을 하고 있다. 참 못나고 물염치한 사람들이다. 일본의 이러한 보복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잘 막아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두루치기 전략이다. 어느 한 곳도 빈틈이 없이 두루두루 상황에 맞추고 두루치기의 능력을 발휘하여 오히려 일본이 꺾이지 못하도록 역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고 탓하기 전에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짜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효과적인 두루치기를 위한 국민적 단합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 우린에게 이것이 자연스럽다

자연스럽게 달리지만 해도

자연스럽게 타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쓰기만 해도

자연과 함께하는 기술

이게 바로, SK이노베이션의

자연스러운 혁신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

**SK** 종합화학

**SK** 루브리컨츠

**SK** 인천석유화학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 아이이테크놀로지